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이었을 때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덧입어 우리 도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 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 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6월 27일 (토) 제 1539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증오의 폭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극복!

#### 미 언론, 찰스턴아프리카교회 총기난사사건 통해 본 “혐오/증오범죄” 심각성 제기

미국 현직 대통령이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흑인이라는 특정 집단을 노린 혐오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혼자서 자기 망상에 빠진 백인 청년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의 아프리카 교회에서 총기를 난사, 9명의 희생자가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이 사건의 여파로 미국 사회는 또 다시 증오범죄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총기 규제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증오범죄는 미국사회에서 고칠 수 없는 천형의 질병같이 건강한 세포들을 병들게 하고 있지만, 지구촌에도 역시 마치 비가 오

거나 추워지게 되면 도지는 만성신경통처럼 퍼져있다. 유럽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그 대상이다.

그러나 미국사회에서는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며, 이번 사건처럼 무고하게 증오범죄의 희생양이 돼가기에, 언제든지 '퍼거슨 사태'처럼 흑인들의 집단폭동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폭력의 악순환'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언론들은 증오범죄의 추한 현실과 그 심각성을 알다뉘 보도하고 있다.

미국사회에서 증오범죄가 일어나면 대부분 피해자는 흑인이다. 그리고 언론은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총력을 다해 파고들기 시작한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 딜란 로프(21) 역시 전형적인 왕따로서 혼자서 '흑인들이 백인 여성들을 강간하고, 미국을 망치려 한다'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다. 경찰이 확실한 범행동기를 추궁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미국인들은 증오범죄로 보고 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18일 '증오범죄의 추한 진실을 보여주는 5가지 지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 사회의 증오범죄 실상을 요약했다.

첫 번째 두드러진 특색은 증오범죄의 피해자를 인종으로 따지면 흑인이 가장 많다는 사실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증오범죄의 피해자가 된 흑인은 100만명 가운데 50명꼴이었다. 북미원주민(인디언)이 100만명 가운데 30명보다 다음 이었고 히스패닉, 아시안, 백인 등이 10명 안쪽으로 뒤를 따랐다.

증오범죄가 최근 10년 동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게 두 번째 특색으로 거론됐다. 미국사법통계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증오범죄 건수는 연간 20만건에서 30만건을 오가며 꾸준히 수준을 유지했다.

실제로 활동하는 증오범죄 단체의 수는 최근 몇 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늘어나는 증오범죄의 치유책은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

나타났다. 잠재적인 증오범죄 세력의 동태를 감시하고 분석하는 '미국남부비판법센터'에 따르면 KKK, 네오나치, 스킨헤드 등 증오단체는 1999년 457개에서 2011년 1천18개로 급증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784개로 줄어든 상태다. 증오단체는 불황 때 기승을 부리고 활황 때 휴면하는 특색이 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최근 감소 추세의 원인으로는 경기변

동, 강력한 사법집행, 내용에 따른 자멸 등이 언급되고 있다.

네 번째 불변한 진실은 증오범죄가 미국 남부나 인구가 적은 북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시피, 앨라배마,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등 남부 주와 버몬트, 몬태나, 아이다호, 뉴햄프셔 등 북부 주들이 고위험 군으로 꼽히고 있다.

(3면으로 계속)

### 중동 분열 씨앗은 '과도한 통합' !

#### 뉴스위크, 런던 킹스칼리지 E. 카시 소장 신간 분석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 중동·지중해문제연구소의 에프라임 카시 소장은 그의 최신 저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The Tail Wags the Dog)"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적었다. "영국의 '원죄'가 있다면 그것은 통념과 달리 중동의 통합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과도한 통합을 시도했다는 데 있다." 카시 소장이 세계의 중동학계를 격분시키려했다면 그보다 더 적절한 문장을 생각해내긴 어려울 듯하다. 또 그보다 그의 논지를 더 잘 요약한 문장도 없다. 역사적 분석을 통해 학계와 대중의 통념을 비트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책의 목표다(Why the Middle East is not our fault).

중동에선 역사가 곧 정치다.

이스라엘 건국부터 열강의 현대 중동 창조까지 그 모든 것의 상충되는 주장이 잔혹행위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정책의 이념적 토대를 형성한다. 정치인은 카시 같은 역사학자의 주장을 근거로 1948년 팔레스타인이 자신의 땅에서 축출됐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반면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는 1916년 영국과 프랑스가 체결한 사이코스-피코 비밀 협정이 현대 중동의 인위적인 국경선을 만들었다며 그 유산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이라크와 시리아 사이의 국경을 허물었다.

카시 소장은 그런 점에 착안해 현대 중동역사를 폭넓게 다룬다. 오스만제국의 몰락부터 현재의 이란 핵 위기가 지 중동지역의 중대한 사건들을 조망한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행위자'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누가 배후에서 조종했는가? 그의 답변은 중동 국가 자신들이다.

서두의 인용 문장이 시사하듯 카시 소장의 주된 논지는 현대 중동이 외부 세력, 특히 서구열강들이 중동국가들의 의지에 반해 강압적으로 형성됐다는 학계의 정설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흔히 중동문제는 세계 강대국의 지정학적 산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

제는 현대 중동의 역사가 오래 전부터 존재했던 그 지역의 고유한 추세와 열정, 행동 패턴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또 중동인은 자율적인 동력이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주변 인식과 달리 끈질기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종종 세계열강들의 기대를 무시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을 유도하는 자유 행위자 역할을 해왔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의 논지가 과장일지 모르지만 몇 가지는 일리가 있다. 책 제목 '꼬리가 개(몸통)를 흔들다'(허약한 중동국가들이 종종 스스로 운명을 개척했으며 때로는 초강대국들을 조종할 수 있었다는 뜻)에 담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사실 옳은 이야기다. 냉전 당시의 '양극 체제의 소규모 '고객' 국가들이 소련과 미국을 조종해 서로 경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1972년 소련이 이집트에 전략무기 공급을 제한하려 하자,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은 막강한 소련의 군사고문단을 추방했다. 그 후 사다트 대통령이 서방으로 기울자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이집트가 그만큼 대안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3면으로 계속)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Online) 기독교상담학과**

1. 학사: 성서학(BABS), 기독교상담학(BACC)
2. 석사: 목회학(M.Div), 신학(MAT), 기독교상담학(MACC)
3. 박사: 목회학(D.Min)
4. 세계 모든 곳에서 통신과 온라인으로 학위 취득 가능
5. ATS 인가 학위로 미국 주류 기독교 대학과 학점 인정 및 편입학
6. 연방정부 학비 지원, 선교사 장학금, 목회자 장학금, 부부 장학금

미국 대학교 인준기관  
ABHE, ABHE, ATS, TRACS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www.wmu.edu /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가장 세속적 도시 뉴욕, 복음으로 변화시킨다" (1)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제자훈련, "시스템" 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16면  
인/터뷰  
카페아메리카노 루크 정 대표

3833261@gmail.com Eastern Presbyterian Church www.epcla.org

## LA 동부장로교회 당회장 이용규 목사 강해설교집 40권 출간 감사예배

총 40권의 설교집

설교마다 성경본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을 제목으로 정하고, 본문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대, 소지를 세워서 말씀의 내용을 쉽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여 새김질하기 좋게 하였고, 또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소지마다 성경구절을 인용하였으며 성경 전체의 사상에 맞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 설교 앞에 간단명료한 설교요약을 넣어서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기억하기 좋게 하였으며, 또한 영어로 번역하여 영어로도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장소**: 동부장로교회 본당  
● **시간**: 2015년 6월 28일(주일) 오후 2시  
● **강사**: 복음대학교 총장 신현국박사

● **저서 안내**

제1권 •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제2권 • 아가서 강해 제3권 •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4권 •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제5권 • 썩지 않는 면류관 제6권 • 스가랴서 강해 설교 제7권 • 위기를 이기는 길 제8권 •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 제9권 • 롯기서 강해 제10권 • 새 천년에 할 일	제11권 • 후회함이 없는 삶 제12권 • 구원 얻는 자의 할 일 제13권 •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제14권 • 감추인 보화와 진주 제15권 • 하늘의 시민권 제16권 • 진정한 평화 제17권 • 하나님의 약속 제18권 • 십자가의 도 제19권 • 새벽을 깨우라 제20권 • 인간의 복된 시명	제21권 • 인생의 바른 길 제22권 • 승리의 신앙생활 제23권 • 선한 목자와 양 제24권 • 위대한 믿음의 유산 제25권 •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제26권 • 빌립보서 강해 제27권 • 영원히 남는 생활 제28권 • 시온으로 가는 큰 길 제29권 • 베드로전후서 강해 제30권 • 택함받은 백성의 축복	제31권 •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제32권 • 간추린 신학 제33권 • 장차 올 영광의 도성 제34권 • 위대한 사랑 제35권 • 대살로니가전후서 강해 제36권 • 큰 산아 평지가 되라 제37권 • 경건한 신앙생활 제38권 • 옛적 선한 길로 행하라 제39권 • 그리스도의 승리 제40권 • 감절의 영광
--	---	--	---

당회장 목사 이용규 박사  
약력: 동아대학교 사학과 졸업  
고려신학대학원 졸업  
Faith 신학대학원 졸업  
한국명륜교회 담임목사 시무  
현 LA동부장로교회 시무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새벽 예배: 오전 5:30 / 주일 오전 1부예배: 9:30 / 주일 오전 2부예배: 11:00 /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00 /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 소: 4270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 문의전화: (213) 383-3261  
LA지역 - 기독교서적센터 (323) 737-7699 / JOY기독교책화점 (323)766-8793 / 세리토스 - 복음사 (562)865-4949



# 시론

##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지난주에 가족의 일로 한국을 다녀왔다. 메르스의 영향으로 한국에 가는 것을 재고해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미 여러 달 전부터 계획된 일정이었기에 계속 기도해온 제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행하였다. 전국을 휩쓰는 메르스의 영향 때문에 한국 내에서의 여행을 자제하였고, 그래서 당연히 무리한 만남을 피하고 처음부터 목표했던 가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일정을 최소화하였다. 메르스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지만 온 세상이 메르스로 뒤덮여 있는 듯이 매일 신문과 TV에서 헤드라인 뉴스로 다루기 때문에 많이 부풀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은 아닐까를 생각하며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게 메르스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라 여겨졌다. 메르스는 손을 자주 닦는 것만으로도 전염을 피할 수 있고, 잠복기에는 감염되지 않으며 발열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있는 경우에만 전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 또한 메르스 바이러스는 건강한 사람들의 면역력에는 당할 수 없다. 침투했다가도 이내 사그라진다. 제대로 수면을 취하고 적당한 운동하며 영양을 골고루 갖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막을 수 있다.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자체가 더욱 큰 문제일 수 있다.

메르스는 공기를 통해 전염되지 않지만 두려움은 공간을 초월해 마음에서 마음으로 퍼져나간다. 지난 한 달여 동안 확진자는 1백 여명에 불과하지만 두려운 마음은 삼시간에 전국민의 마음을 점령하였다. 메르스는 두 주간의 잠복기라도 있지만 두려움은 뉴스 한토막으로도 즉시 발병한다. 적절한 온도도 습도도 메르스의 온상이지만 메르스 괴담은 두려움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메르스로 인해 이미 병을 가지고 있는 소수가 죽었지만 두려움의 피해는 더 크다. 두려움은 가족도 의심하게 만들고 이웃조차 돌아서게 만든다. 메르스에 대한 불안이 공연했고 증폭되었다는 것은 인종공황을 나올 때도, LA공황을 들어올 때도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는 것으로도 증명되었다. 이야기의 핵심은 메르스에 대해 조심하는 것까지는 옳지만 과도하게 불안과 불신과 두려움을 양산하는 것은 문제라는 뜻이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때 전에 보았던 영화 "명량"을 다시 보았다. 12척의 배로 300여척의 왜선을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 이순신 장군을 빼고는 모두가 진다고, 질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싸우기도 전에 조선수군의 사기는 이미 바닥을 쳤다. 그래서 이순신은 무엇보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순신은 일본이 처형해서 보낸 조선 군사들의 머리들을 보고는 겁을 집어먹고 탈영한 군사들의 목을 직접 베어버림으로 기강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순신이 외친 말, "군율은 지엄한 것이다!" (Discipline is absolute). 이런 행동이 흔들리는 군사들의 마음을 다잡게 만들었다. 또한 아들과 소수의 조선배로 엄청난 다수의 왜선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순신은 "이길 수 있는 복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두려움이 문제"라고 하였다. 그가 유심히 관찰한 명량의 물살을 이용한 필살기조차도 두려움을 떨쳐야 승리를 거두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게다가 마지막 명량해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자신의 직속부하들이 무모한 전투를 그만두자고 고언을 하였을 때는 마을 전체를 불사르고는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이제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육지라고 무사할 수 있느냐?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살고자 하는 자는 필히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병사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천 명을 떨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형국을 두고 한 말이 아니더냐?"라면서 결사항전으로 이끌었다. 이순신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고자 하였고, 그가 가장 최전방에서 적선을 상대해서 두려움 없이 싸웠기에 역사에 길이 명량해전이 되었다.

52일 만에 거대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한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에 대하여 원수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려고 수없이 검박하였다(6:9,13,14,19). 원수들은 두려움이 엄습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눈치 챈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미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4:14).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이다. 작은 일이라도 시도하려면 우선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딤후1:7). 성경에서도 일년내내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려 365번이나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는가? 진정한 용기란 두려워하면서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경우가 마음과 와 닿는다. 어러울수록 정도(正道)를 걷겠다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일 뿐이다.

# “가장 세속적 도시 뉴욕, 복음으로 변화시킨다” (1)

## 리더십저널, 뉴욕 리더머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의 도시변화 전략과 구체적 실천사항 소개

지난 1989년 뉴욕시는 살인과 마약 등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신앙인들은 이미 뉴욕을 포기하고 떠났고 그나마 남아 있는 사람들도 힘을 쓰지 못했다. 이 때 팀 켈러 목사는 '세속적인 도시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며, 맨해튼 도심 한복판에 리더머장로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개척 당시 50여 명의 성도로 시작한 교회는 현재 8000여 명의 성도들이 주일마다 모여 예배를 드리는 초대형 교회로 성장했다. 맨해튼에서 각 분야를 주름잡는 변호사와 예술가 등 20, 30대 전문직 종사자들이 교인들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

현재 리더머교회는 웨스트사이드, 이스트사이드, 다운타운 세 곳에서 매주 일요일 8차례의 예배가 진행된다. 이스트사이드 예배는 헌터

칼리지 대학 건물을 빌려 진행할 만큼 그 규모가 크다. 따라서 리더머교회는 "맨해튼에서 가장 생기 넘치는 회중"이라고 평가된다. 지난 2006년에는 '교회보고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50'에서 16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팀 켈러 목사 사역이 이처럼 건강한 성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켈러 목사는 바로 뉴욕 즉 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킨다는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리더십저널은 지난 25년 동안 켈러 목사와 리더머교회가 뉴욕을 상대로 펼친 '도시를 하나님 품으로' 사역을 자세하게 소개한다(To Transform a City: How do you know if you're reaching a city?).

도시를 품으려면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아무리 새 신자가 많고 부흥하는 교회라 하더라도, 훌륭한 교회 몇 개만으로는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도시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그 중에는 급성장하는 교회들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큰일을 하고 계신다고 느낄 만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도시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 몇몇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하더라도 전반적인 교인 숫자는 거시적 거



했다.

내가 말하는 '성경적 복음'이란, 율법적 도덕주의나 방종한 상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제3의 길을 뜻한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제시하면서, 가장 먼저 이 점을 분명히 한다. "자기 욕망대로 사는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복음을 놓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의 표현에 따르면, 기독교회는 "술 취한 사람과 같다. 말에서 떨어진 이 술주정뱅이

### 도시 변화는 도시 전체 차원의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도시운동 핵심의 첫 번째는 상황화 된 성경적 복음신학운동 상황화는 신학보다는 오히려 문화와 더 관계있어

기라면, 과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교회 성장은 대개 "교인의 수 팽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심심하고 형편없는 교회를 떠나 활발한 교회로 옮겨간다. 그렇게 옮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수평이동을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신앙 좋은 어느 여성이 형편없는 교회를 다니는데(교회는 좋지만, 싸움과 골치 아픈 문제가 너무 많다),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서 안 믿는 친구를 데려가기가 꺼려진다고 하자. 고민 끝에 같은 동네에 있는 다른 교회로 옮긴다. 그녀의 불신 친구는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을 갖게 된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지만 이를 두고 도시를 품는 사역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도시를 품으려면, 도시 전체 차원의 복음운동이 필요하다. 그 도

시의 그리스도인 인구성장률이 도시 인구성장률을 앞지르고, 복음중심 교회와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도시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내가 언급한 도시 전체의 복음운동이란 이런 것을 뜻한다.

도시 차원의 복음운동은 유기적이어서, 도시뿐 아니라 다양한 교파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어준다. 따라서 어느 한 교회나 한 단체, 한 사람의 리더가 이 복음운동을 책임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운동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이다. 성령이 도시 전체에 역사하시면,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성장속도가 인구 성장속도를 능가하고, 교회가 도시를 품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미치는 영향력이 온 도시를 감싼다.

#### 도시 복음 운동의 핵심

이런 영향력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우선, 이 운동의 핵심에는 첫 번째 차원, 즉 상황화 된 성경적 복음신학이 있다. 이 성경적 복음신학은 어디서 나왔는가? 나는 성경의 사도행전과 과거의 부흥 역사를 다른 책들, 뉴욕에서 목회한 경험에서 이 신학을 발견

는 말에 겨우 올랐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떨어진다."

오늘날 성경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주의나 상대주의, 즉 성경을 전부 받아들이길 필요는 없다는 사상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상은 성경의 권위를 폄하하기 때문이다. (13편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편집국장서리: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포)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포)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포)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 2015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http://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USED) OPE ID: 03528300,  
[www.ope.ed.gov/accreditation](http://www.ope.ed.gov/accredi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 in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신학, 기독교교육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 in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mailto:wdc@midwest.edu)

# “증오의 폭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극복!

(1면에서 계속)

미국 홀보트 주립대의 연구진이 트위터에 게시된 말을 분석한 결과 버몬트에서 증오범죄와 관련된 말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인디펜던트는 생활고가 증오범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마지막 특색으로 꼽았다.

미국 프린스턴대학의 경제학자 앨런 크루거 교수는 빈곤율이나 실업률 등 경제적 요인이 증오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2002년 분석했다.

그는 경기 침체보다 처벌이나 제재가 느슨해지거나 고의로 법규를 위반하는 시인불복 중 분위기가 자극될 때 증오범죄가 더 자주 발생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제학자 매트 라이언, 피터 리슨의 2010년 연구에 따르면 증오범죄의 수는 증오단체의 수와 비례하지 않고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였다. 이들은 빈곤과 실업이 증오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미국은 1990년 제정된 증오범죄 통계법을 통해,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종교, 장애, 성적지향, 민족에 대한 편견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증오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 재판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임에도 불구하고, 감소되기보다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처럼 미국 사회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오래 전부터 있어 온 북미인디언이나 흑인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구조화된 혐오’는 차별과 배제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혐오 주체는 혐오의 대상이 되는 자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정신에 대해 치명적인 상처를 가하거나 물건이나 주택 등에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혐오가 극단적인 범죄로 표출되기도 하는 것

이다. 본래 범죄 행위는 그 자체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행위다.

이러한 범죄가 차별적인 동기와 결합해 발생한다면, 그 집해의 심각성은 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범죄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형성된 개념이 바로 혐오범죄라는 범죄유형이다.

이처럼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 비하, 적대감, 증오 등을 동기화 하는 범죄가 바로 증오범죄다. 결국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장애, 계급, 인종, 출신국가, 민족, 젠더, 성별 정체성, 정치적 단체에의 가입 등에 대한 혐오 또는 편견이 범죄 동기의 전부 또는 일부로 작용한 범죄로서, 피해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그렇다고 인식됨으로써 발생하는 범죄유형이다. 그래서 혐오범죄를 편견범죄(bias crime) 또는 편견을 동기화 하는 범죄(bias-motivated crime)라고도 부르고 있다.

혐오범죄는 일반적인 범죄에 비해 그 피해의 심각성이 크다. 혐오범죄는 범죄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한 경우가 많고, 피해자에게도 다른 범죄 피해보다 강도 높고 지속적인 심리적 손상을 가하며,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표적 집단 전체가 범죄피해를 입은 것과 같은 결과를 낳고, 결국엔 전체 사회의 안정성과 안전을 해치고 갈등을 확산시킨다.

사실 혐오범죄는 특정 집단이나 조건에 대한 ‘구조화된 혐오’ 또는 증오’가 표출되는 것이고, 이러한 혐오 또는 증오는 심리상태라기보다는 오히려 ‘편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지적인 개념에 가까워 보인다. 실제로 많은 혐오범죄의 가해자들이 범행 당시에 증오의 심리상태에서 범행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거나 자기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혐오범죄를 저지른다.

한편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증오범죄는 피해자나 공동체에 더욱 심각한 위협들을 가하게 되는 특성을 지닌다.

먼저 피해자 개인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혐오범죄의 피해자들은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보다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노출된다. 신체적 피해의 정도와 상관없이 극도의 모욕감을 경험하고, 그 후유증으로 우울증, 불안, 무력감, 고립감,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편견과 폭력의 역사, 억눌려왔던 ‘열등함’에 관한 문화적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고 범죄피해를 굴종의 표시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소수자가 더욱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든다.

또 피해자는 자신을 피해자가 되게끔 만든 그 특성을 바꿀 수는 없으므로 더 큰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폭력을 동반한 낙인찍기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실패할 것이라는 예상을 영구적으로 보유했다고 느끼게 된다.

또한 혐오범죄의 피해는 피해자 개인을 넘어 표적 집단 전체로 확산된다. 가해자는 표적 집단의 표식 자체를 노린 것이기 때문에 표적 집단 내부의 다른 사람들은 피해자에 대해 동정이나 공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이 피해를 경험한 것처럼 느끼고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표적 집단의 공포는 공동체로부터의 이탈, 이주 또는 고립을 추구하는 심리로 이어져 공동체가 붕괴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소수자 공동체가 소수자의 자긍심과 역사, 문화의 중요한 거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결

과는 소수자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결국 혐오범죄로 인해 집단 간의 지속적인 긴장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전체 사회에 대한 악영향으로 이어진다. 한마디로, 사회의 안전이나 안정을 해치고 사회가 공유하고 추구하는 평등과 조화,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손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결론으로, 미국 사회에서 증오를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증오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증오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처방전을 제시한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지 않는 사람이라면, 가해자는 그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입힐 도리가 없다는 원리 때문이다.

미국 사회에서 증오는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의 범죄전문가들은, 다만 그저 극복될 수 있을 뿐이라는 해법만 제시한다. 그러나 극복에는 시간이 요구되고, 모델이 있어야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가장 적절한 모델이고 의미가 담겨 있다. 당장이라도 자신을 모멸하고 비웃으며, 끔찍한 처형에서도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 자신이 죽어야만 죄와 죄의 영향이 물러나기 때문이다.

예수를 따르는 것에는 가해자나 피해자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증오범죄라는 도구를 통해 사탄이 심어주는 끔찍한 악몽과 같이 발목을 잡는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도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보복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폭력의 악순환’에서도 나오지 못하게 된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말처럼, 고난을 감내 해내면 반드시 영광은 온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 중동 분열 씨앗은 ‘과도한 통합’!

(1면에서 계속)

그레서 모욕을 무릅쓰고 소련은 이집트에 원조와 무기를 다시 제공했다. 실제로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것이다.

카시 소장은 초강대국의 중동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란에서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린 1979년 이슬람 혁명을 미국이 막지 못했듯이 소련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무

장조직 무자헤딘에 쫓겨났다. 또 2001년 미국이 탈레반을 무너뜨리려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지만 탈레반의 세력은 지금 더 강해진 듯하다.

카시 소장은 이 책에서 학계의 정설을 거부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 건전하다. 그의 저서가 대부분 그렇듯이 이 책 역시 철저한 조사와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면서

도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또 이 책은 비판주의 색채를 띠기도 한다. 카시 소장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맹비난한다. 정책이 아니라 ‘민주주의 심화’ 같은 마법의 묘약을 선호함으로써 현대 중동의 현실을 부인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과 중동인이 모두 “이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는 대부분 현지 권력자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한 중동은 계속 재앙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릎을 칠만한 지적이다. 물론 이라크전 같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중동을 극단적으로 재편하고 파괴한 것은 사실이지만 말이다. 어쨌든 이 책은 현대 중동에 관한 가장 터무니없는 허구 중 일부를 바로잡아 준다. 중동에 관한 많은 책이 그렇듯이 카시 소장의 저서 역시 중동 정치의 역사라기보다 중동 역사의 정치적 분석이라고 해야 옳을 듯하다.

#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 시편 123편: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23편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십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으나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쉽게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넘어지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귀한 것을 깨닫는데 “내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입니다(롬7:24). 그것을 깨닫는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렇게 불행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속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가까이 오라는 그분의 손짓입니다.

“익은 곡식일수록 고개를 숙인다”, ‘아는 사람일수록 겸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내용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생각을 먼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고후11:30). 맞습니다. 연약함을 깨달은 자일수록 아버지로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연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입니다. 수많은 소리를, 염려가 많은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유일한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인생길의 피난처요 산성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평생 붙잡고 가야 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서 또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로 이끌어주셔서 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먹으면서 살게 해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인생길에 말씀으로 막아시고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과 소망을 주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잊지 않으십니다. 마실 물이 없어 방황할 때 뜻하지 아니한 바위에서도 물을 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아니한 마실 것을 주시면서 마시라고 하시며,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으니 힘내라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길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멸시와 조소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는다고 느끼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요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맥구름 사이를 통과할 때도 있고, 조소와 멸시의 숲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만 탓하기보다는 문제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이 문제 속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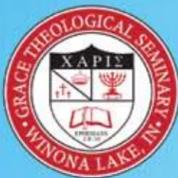
아버지는 우리가 다 건강한 자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어디에 갖다 놓아도 어둠의 영향을 받는 대신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가 되라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시와 조소를 만나면 마음에 풍량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 가도록 훈련하는 것이 우리 삶의 과제입니다. 멸시와 조소를 한 상대방을 공격하지 말고 ‘주여,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평온케 하여주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망의 독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조소와 멸시로 인해서 미친 듯이 분노가 일어날 때, 어서 속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곳에 미친 듯이 일어나는 사망의 독이 다 정화되게 하시고, 풍량을 잠잠케 하셨던 살아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망의 풍량이 잠잠해지도록 역사해주소서!’ 마음을 다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기도하여 보십시오. 곧 여호와와 능력으로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귀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잠16:32). 마음을 늘 살펴보십시오. 모든 행복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On Campus Courses 2015 가을학기 강의 안내

Sept 28-Oct 2(9월 28 -10월 2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er & Dr. Stephen Park

Oct 5-9 (10월 5-9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8(10월 8일) 특강: Dr. Scott Moreau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er

DI 8220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구약에서의 문화)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iberius Rata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o@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똑똑한 바보

25센트짜리 동전 한 개와 1불짜리 지폐 하나를 앞에 놓고 하나만 집어가지라! 그러면 동전을 집어가는 바보가 있었다. 그러면 동전 아이들은 모일 때마다 바보는 동전이 좋은 줄 안다고 동전과 지폐를 함께 내놓고는 동전을 집어가는 이 친구를 놀렸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동리 어른이 어느 날 이 바보를 조용히 불러 지폐가 더 큰 돈인데 왜 동전을 집어가지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제가 지폐를 집으면 친구들이 다시는 동전을 집어갈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더라. 어른은 혀를 차

면서 '정말 똑똑한 바보구먼'했다. 일본의 한 화가는 예수님을 '바보'로 묘사했다. 사실 산상보훈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5장 뒤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아무래도 바보라는 생각이 든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여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동행해라! 너를 박해하는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분명 바보나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똑똑한 바보의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이라는 것이다. 똑똑한 바보의 라이프스타일이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는 것이다. 왜 하필 오른뺨인가에 대해서 랍비들의 설명이 재미있다.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려면 내 왼손으로 때려야 한다. 그러므로 오른뺨을 친다는 말은 손등으로 때리는 것을 말한다. 뺨을 치는 것만으로도 모독인데 손등으로 뺨을 때린다는 것은 가장 심하게 모독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존중과 신뢰를 받아야 할 우리가 아주 심한 인격적 모독을 받았을 때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다. 오른뺨 맞았다고 욕하고 주먹을 내밀면 나는 살인자가 되기 쉽다. 그러므로 인격모독을 당했다고 살인자가 되기보다 그냥 손해를 보는 바보 관용과 온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똑똑한 바보가 되라는 뜻이다. 두 번째 똑똑한 바보의 라이프스타일을 성경은 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지게 하며" 했다. "너를 고발하여" 라는 말은 재판정에 고소를 당해서 다 빼앗기고 이제 속옷 한 벌까지 빼앗기는 비참한 상황을 말한다. 최소한의 권리를

마져 빼앗길 위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시 가난한 유대인은 겉옷을 낮에는 의복으로 밤에는 이불로 사용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26에서도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랬다. 그래서 주님은 겉옷까지 내놓아야 할 형편에 몰리면 흔쾌히 내어주라는 것이다. 최소한의 권리,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어주고 그냥 손해보고 사는 똑똑한 바보가 되라는 말씀이다. 세 번째 똑똑한 바보의 라이프스타일이 41절과 42절에 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1절 "억지로"라는 말은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로마인들은 길가를

유대인이면 아무나 붙들어 강제로 한 마을에서 다음 마을까지 짐을 지워 가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세상 살아가다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때로는 내 인격적인 의지나 결단이 없이 억지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때도 관용과 너그움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한 바보라는 말이다. 마지막 네 번째 똑똑한 바보의 라이프스타일이 43절 44절에 있는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예수님도 몸소 바보처럼 원수들을 사랑하셨다. 원수 값을 힘 없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도 아니었다. 똑똑한 바보처럼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이기에 그렇게 사신 것이다. 십리 길을 가주는 인생이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을 때

그 의무보다 더 많이 하면서 사는 인생이다. 주변 사람들이 거는 기대감보다 더 많은 성취를 이루어 주는 인생이다. 받는 대가보다 더 많이 일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직장에서의 근무시간과 태도만 보아도 그렇다. 늘 지각하고 결핍하면 조퇴하는 사람들-오리 길도 못가는 사람들이다. 땀땀땀하는 사람들, 정확하게 제시간에 출근하고 땀 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오리 길 인생이다. 그러나 좀 더 일찍 출근하여 하루 일을 준비하고 근무 시간에는 성실하게 맡은 일을 다 하고 그리고서도 좀 더 할 일을 찾아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십리 길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이다. 함께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문제이다. 그런데 여기 생각된 말은 '기쁨으로'라는 말이다. 기쁨으로 십리 길을 동행하라는 말씀이다. 가고 싶지 않을 때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기쁨으로 계속 가는 사람이 똑똑한 바보다.

푸 / 른 / 초 / 장

이남수 목사  
(하와이 행복교회)



옛날에는 이가 흔들리거나 잇몸이 부으면 바람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풍치'라고 했지요. 그런데 요즘 현대에서 X-레이로 자세히 보니까 잇몸이 붓고 아프고 이가 흔들리는 이유가 치석이 끼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를 잘 닦지 않으면 치석이 낫습니다. 그 치석이 이빨 사이로 들어가니까 풍치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치과에 가서서 딥클린(deep clean)을 하시면 이가 많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가만히 놔두면 이빨처럼 썩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칫솔로 매일 매일 우리의 영혼을 닦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자주 닦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닦아야 될 것입니다. 치아 썩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썩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닦지 않으면 썩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

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닦고 닦아야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진짜란 말과 반대의 개념으로 '날라리'란 말이 있습니다. 진짜 성도의 반대가 날라리 성도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날라리입니다. 한번은 교회에 왔다가 한 번은 세상에 살다가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날라리입니다. 도대체 하

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도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이 날라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저와 여러분 매일, 살아있는 예리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것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식충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든 이민 생활 속에 정신없이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식충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밥만으로 살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밥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하는 것이예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말씀 없이 떡으로만 살다 보니까 내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주위사람들을 한번 봐 보세요. 떡으로만 살면서 지치고 힘들어 하는 인생들 많이 있습니다. 니까? 그 기초가 반석위에 놓았기 때문이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위에 세운 연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위에 집을 세운사람이라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집을 어디에다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가끔 내 인생의 집이 반석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영혼의 상태가 건강한 상태인지 또는 진짜 성도인지 날라리인지 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집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까지 세우신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모래위에 세워져 있다면 지금부터 다시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이라는 집을 짓습니다. 사업이라는 집을 짓습

다. 이민 오셔서 영어도 잘 못하면서 부지런히 집을 지어갑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신앙의 집을 짓습니다.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러하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반석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다윗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갔지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 가서 씻었더니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 그냥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행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예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체와 이 교회에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태복음 7장 24-29절)

한어권 부목사 청빙 공고

콜럼비아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는 한어권 부목사를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청빙 요건

- PCUSA 교단소속 또는 가입 가능하신 분
- 정규 신학대학원 을 졸업한 목회자
-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 KM 목회 경험자
- MIF 참조 (ID#23308 AC0)

제출 서류

- 이력서 (가족사진 1장 포함, 한-영 각각 1부씩)
- 학위 증명서
- 목회자 추천서 2통
- 신앙고백 및 목회 철학 1통
- 최근 설교 CD/DVD 2회분 또는 웹사이트 주소

제출처

- Elder Dong K.Noh (청빙위원장 노동길 장로)
- 1412 Richland Street Columbia, SC 29201
- Tel. 803-765-2500
- Email: info.kcpcsc@gmail.com
- 교회 website: www.kcpcsc.org

제출 마감

- 2015년 8월 8일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임된 분에게는 개별통지합니다

콜럼비아 한인연합장로교회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영 어:	_____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_____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 어	
전화번호/Fax	( ) ( )	_____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1537호 5면에서 계속)

2) 칼빈의 경제에 대한 윤리  
 칼빈은 잘못된 엄격한 금욕과 잘못된 방종을 모두 비판하면서 기독교인의 경제윤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정하신 목적에 따른 재화의 사용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칼빈의 경제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복종을 떠난 세속주의적 경제학과는 근본적으로 그 출발점과 목적이 다릅니다. 세속적인 경제학은 단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의 경제관은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중심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명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경제윤리에는 창조-타락-구속이라는 성경의 신학적 틀 속에서 참된 의미를 추구하

시의 경제적인 구조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먼저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고리대금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이자 대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이웃을 도와준다는 점에서 무이자 대부를 참된 신앙의 표시로 인정하여, 그 가치를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는 신명기 23장 20절을 그리스도인과 관계없는 구약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국가법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는 이자에 대해 공의와 사랑의 원칙을 따라 판단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신명기의 본문에 대해, 구약의 특정한 시대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을 현대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비에 영감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빌리는 사람에 대해 갖는 책임감을 갖기를 강조합니다. 당시의 제네바의 사업가들은 자기들의 돈을 10%의 법정 이자율로 예치하려는 은행을 설립하려고 계획했을 때, 배자가 이르는 목사회가 이를 반대했습니다. 그의 이자관은 금전 거래는 산업과 상업의 발전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될 수 있도록 쉽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반드시 통제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제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4) 칼빈의 이자관에 대한 배경  
 칼빈은 과거에 중간상인을 기생충이라고 하며 고리대금업자를 도둑이라고 비난하는 과거 전통에서 벗어나셨습니다. 루터와는 달리 부당이득이라고 비난하는 교역과 금융의 이윤을 노동자의 소득 및 지주

공정과 정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본과 신용은 필수적이며 금융업자는 사회의 유용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합리적이고 대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행해진다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사람들의 모든 상업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맺는 글

성경의 이자에 대한 말씀은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에게 식량이나 종자를 대부해줄 때는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고, 무역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상업 대부를 해줄 때는 이자 받는 것을 허용합니다. 칼빈의 이자에 대한 사상은 아주 분명합니다. 먼저 성경 해석에 따른 그의 이자관은 고리대금을 부정하고 가난한 사람에 대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에서 이자 윤리 (하)

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경제활동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치기적 사명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이웃을 자신의 탐욕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경제적인 불균형과 부정이 계속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모든 경제 윤리를 성경의 구원론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성경적 원리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유기체적인 결속을 강조함으로써, 물질에 있어서의 나눔과 직업에 있어서의 공동체에 대한 봉사의 면을 더욱 더 강조했습니다.

3) 칼빈의 이자에 대한 윤리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 주는 교리는 칼빈에 의해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신학적인 면에서 혁명적인 것이었으며 경제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자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전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자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해답을 구하면서 또한 실제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고심하며 당

그는 이자를 받는 관례가 없어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상업 행위에 있어서 이자는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의 이자 윤리에서 특징적인 것은 소비성 이자와 생산성 이자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리대금은 생산자금의 대출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생산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이자를 받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돈이 생산성이 없다는 과거의 확고부동한 생각과는 달리, 돈이 다른 상품처럼 생산성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자에 대한 말씀을 생산 자금 대출에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쓰여 할 돈을 이의 창출을 위해 굴리는 것은 탐욕이며, 법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것은 부정한 것이며, 가난한 자가 빌려간 돈의 이자에 상당하는 돈을 벌지 못한 경우, 이자를 받아서는 안되고, 법정이자를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는 이자율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를 원치 않았지만, 돈을 빌려주는

의 지대와 똑같이 존중받을 수 있는 수준에 놓았습니다. 상인의 이윤은 그 자신의 부지런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자가 합법적이 되려면 그것은 법정의 최고액을 넘어서지 않아야 하며 최고액이 정해진 때조차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대부가 무상으로 되어야 하며 채무자는 채권자와 같은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어떤 인간도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을 위해 경제적 이득을 낚아챌 수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윤의 적은 부분을 양보하라는 요구를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이자의 착취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땀으로 부유해지고, 채무자가 노동에 대한 보상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자를 인정하지만, 가난함을 이용하여 짜낸 이자와 변영하는 상인이 사용하는 구절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조건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자본에 대한 이자의 지불은 토지에 대한 지대 지불처럼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영원한 것은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규칙이 아니라,

한 무이자 대부를 지지합니다. 또한 경제 구조 분석에 따른 그의 이자관은 소비성 대부의 경우에는 이자를 금지하고, 생산성 대부의 경우에는 이자를 허용합니다. 무엇보다 죄의 현실적인 인식에 따른 그의 이자관은 이자 대부를 무한정 자유롭게 하지 않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이자관은 당시의 산업계급과 상업계급이 처한 환경의 실제적 필요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원리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이자 소비성 대부를 해주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 방글라데시(Bangladesh)의 경제학 교수였던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무이자 대부 은행을 설립하여 200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유누스 총재가 가난퇴치를 위해 선택한 방법은 자신도 혁명도 아닌 자활의 종자돈이 되는 소액 무담보 대출(Micro-Credit)이었습니다. 1976년 첫 대출을 시작한 이래 그라민(Grameen) 은행은 30년간 총 660만명의 빈민들에게 57억 달러를 대출해주었고, 이들 중 58%가 가난에서 벗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6면으로 계속)

###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E-Mail: t1scp0316@gmail.com

Q: 구약성경을 읽다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이레에 대한 내용 중에 9장 27절에 나오는 그는 과연 누구인지요?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온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것은 또한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팔로스 버디스 김 권사

A: 이 다니엘서의 70이레는 매우 어려운 종말론적 계시로 "말세의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전건축 명령이 일어난 후부터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서 즉 69이레가 지날 때에 기쁨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야인 예수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명을 완성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 후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으로 세상은 끝나는데 남은 이레가 바로 한 이

### '그'는 적그리스도...사흘반 후 예수님이 재림

레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한 이레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반드시 요한계시록과 함께 다른 종말론적 예언과 함께 풀어야 합니다. 한 이레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풀어야 하는 수라고 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한 7년 후에 재림하신다는 결론이라면 이미 부활 승천 후 2000년이 지나 버렸지 않습니까?

단9:27에 나오는 '그가 장차...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에서 그는 적그리스도(Anti-christ)를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를 예수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가 있으나 문맥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 이레의 절반 즉 후삼년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입니다. 살후2:3을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 할 것이며..." 라는 말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죽이고 교회는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정치와 종교와 경제계를 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공산주의 문화 혁명 때에 교회가 문을 닫듯이 하는 일이 재연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IS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목을 따듯이 죽일 것입니다. 요즘 IS(Islam State)가 하는 행동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할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11:7절을 보면 교회가 전3년반의 기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되면(1260일의 기간, 계11:3) 후삼년반에 무지개에서 나온 짐승이 전쟁을 일으키고 지회를 이기고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시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순교할 것입니다.

단9:27처럼 적그리스도는 성격이 잔인하고 강포하여 미온 물건이라 할 수 있으며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것은 계13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선지자를 대동하여 사람들에게 자기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할 것을 말합니다. 살후2장4의 말씀처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으로...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기간이 너무 핍박이 심하고 잔인하기에 계11:9-11을 보면 사흘반으로 짧게 표현했습니다. 사흘반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를 사로잡아 불못에 던지시니(계19:19-20).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2015년 6월 29일(월) ~ 7월 9일(목)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213.382.1450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한인타운 내 카타리나와 8가 코너에 있습니다

조성근 목사

gstcenter98@gmail.com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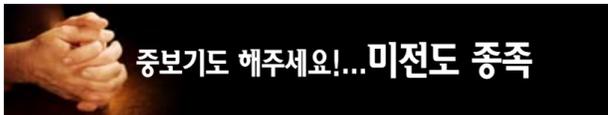
### 방송설교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튜브 <http://www.youtube.com/user/cbsolomontv>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검색



## 2015년 부흥성회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1~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기도성회 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3일 인천강성교회(이철호목사) 8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중진목사) 11~13일 (협동)동인천노회 남부시찰 재부흥회 16일 과천교회(주현신목사) 18일 예복교회(소진우목사) 22~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일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 2~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12일 GST 신학생훈련(34차) 15일 사랑스런교회(백성준목사) 16~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2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3~25일 동촌교회(윤석호목사) 27일 백석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1~3일 예수버전교회(박정홍목사) 5일 총신대학교 생명수련회(김지연총장) 9~11일 (협동)대백시찰 연합성회 16~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3~26일 갈멜산강화금식기도원(강화) 29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6~8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13~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0~22일 안산 시민교회(이상권목사) 23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체류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29일 화평교회(이재욱목사)	1~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8~2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4~27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31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1~4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8~1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일 예우림교회(류병희목사) 22~24일 남수원노회 교사강습회(합동) 25~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3~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29일 천마산기도원(육광석목사)	3~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9~12일 나사렛성결교단 연합성회 (장소: 나사렛대학교) 17~20일 GST 신학생훈련(35차) (장소: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21~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라오스의 루(Lu)



라오스는 동남아시아, 중국 남쪽 국경을 대고 있는 작은 나라로 열대지역에 속하며,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지형적으로 거칠고 긴 모양을 가진 나라다. 루족은 라오스의 서북지역인 남우(Nam U) 계곡 부근에 타(Tha)강과 벵(Beng)강을 따라 거주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타이어의 서남지역 방언에 속하는 성조어다. 본래 루족의 고향은 중국이나, 중

국인들의 압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세운 공산주의 정권으로 루왕국은 멸망하게 됐고, 많은 루족 사람들이 버마(현재의 미얀마)와 태국 북부지방으로 피난해 메콩강을 따라 거주하게 됐다. 이들이 살게 된 라오스는 바다를 대고 있지 않는 내륙국가로서 생존을 위해서는 인근 국가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가다. 짐략, 내전, 프랑스 식민 등의 시간을 보냈으며, 중국에는 주위 모든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됐다.

**삶의 모습**  
루족은 인도차이나 반도로 오기 이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적 생활양식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농부들인데, 강과 계곡 부근에서 쌀농사를 지으며 팔기도 한다. 농사일에 물소가 끄는 구식 나무 장비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멋진 어부가 되기도 하고 솜씨 있는 은세공장이 되기도 한다. 남성들은 유명한 루족 김을 제조할 수 있으며, 여성들은 직조와 자수와 같은 것에 특별한 재주를 나타낸다. 루족 남성들은 산족이나 북부 타이족 남성들보다 몸체와 키가 더 크고 힘도 더 세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적색, 노란색, 또는 백색의 띠 무늬가 있는 짙은 청색 바지를 입으며 큰 백색 터번을 두른다. 남성들의 특이하고 생동감 있는 검춤이 유명하다. 여성들은 수를 놓고 작은 은조각으로 꾸민 밝은 청색의 상의를 입는다. 여성들은 또한 적색이나 주황색 치마를 입고 터번을 두른다.

루족의 가정에는 조상의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결혼식 때 성적 품행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 루족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적으로 보인다. 일단 한 쌍의 부부가 결혼을 하면, 그들의 생활계획은 어느 가정이 이 부부의 노동력을 더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루족 마을은 논으로 둘러싸인 약간 높은 지역이나 도로, 작은 길 변의 높은 땅에 위치한다. 가옥들은 특색을 가진 타이식 더미(pile)집이며, 대나무를 쪼개 바닥재로 하고 짚을 엮어 만든 초가지붕 가옥이다. 각 마을에는 마을을 지휘하는 수장이 있으며 이 수장은 쌀농사를 지을 적절한 땅을 골라내야 한다. 사회적 통제가 엄하지는 않으며, 억압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 주술이 사용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루족 부족사회는 저지대

사람들로부터 매우 많은 직접적 침입을 받아왔으며 이로인해 저지대 사회에 많이 융화됐다. 이들은 라오스의 내전에 관여하기도 했다. **신앙** 루족 사람들의 80%가 전통민족종교를 믿는다. 테르바다 불교(Thervada Buddhism)와 전통 정령숭배 사상이 때로 혼합되기도 한다. 루족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물체도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으며, 인간은 복수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또한 "토지의 신"이 있다고 믿으며 이 신에 의해 사회에서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이들은 조상숭배의식을 행한다. 신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루족 사람들은 종교적 노래, 의식, 제사 등을 통해 신들을 달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루족은 환생을 매우 중요하게 생

각하며, 자신들이 착하게 살면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들이 만약 악하게 살면 지금보다 수준이 낮은 동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과거 역사를 통해 루족은 전투와 유혈분쟁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이들은 상처치유와 새로운 영적 소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성경이 모두 이들의 언어로 번역돼야 한다. 1933년에 신약성경이 번역됐으나, 현재는 읽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진척이 느리기는 하나 현재 루족을 위해 한 선교단체가 사역하고 있다. 현재 라오스에 사는 루족 가운데 625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남침례교 플로이드 총회장 "동성결혼 반대"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달 중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릴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미국교회 지도자들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나섰다.



미국 최대 개신교단인 남침례교 로니 플로이드(사진) 총회장은 16일 미국 오하이오 폴립버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총회 개회연설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미국 기독교매체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플로이드 총회장은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며 "남침례교는 동성에 문제 앞에 소심하고 애매모호하게 물러서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님께서 이미 정의하신 결혼에 대해 인간이 다시 정의할 수는 없다"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동성 간 결합이나 동성결혼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남침례교 교단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결혼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상관없이 결혼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해석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적 의미의 결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품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미국 유명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은 지난 10일부터 온라인 사이트(defendmarriage.org)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5만명 이상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서명했다. 서명자 중에는 공화당 대선후보인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전미 히스패닉 기독교 지도자 콘퍼런스 대표인 사무엘 로드리게스 목사, 국제종교방송인연합회 제리 존슨 대표 등이 있다.

이번 서명은 비영리 국제 기독교 법률단체 리버티 카운슬 액션의 매튜 스테이버 의장과 가톨릭 온라인의 케이시 프루니어 편집국장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청원에 서명한 이들은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정부 노력에 반대한다"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 에볼라 피해 아프리카 어린이들, 노동·학대로 신음

서아프리카를 휩쓴 에볼라 사태가 시에라리온의 아동 노동과 학대, 10대 임신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제구조개발기구 세이브 더칠드런과 월드비전, 플랜인터내셔널은 시에라리온 9개 지역에 거주하는 7-18세 아동 1193명을 대상으로 에볼라가 미친 영향을 조사한 '에볼라 피해 아동들의 일상'으로의 회복에 관한 조사(Children's Ebola Recovery Assessment)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에라리온 정부가 구상 중인 '에볼라 피해 대응 전략'에 아동들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에볼라 피해 시에라리온 아동의 삶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응한 아동 대부분은 9개월간 학교가 폐쇄돼 에볼라 사태 이전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했다고 대답했다. 또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더 자주 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에볼라 사태는 10대 소녀의 임신율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체 조사 아동 중 10%는 10대 임신율이 높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에볼라를 꼽았다. 에볼라로 가족과 친척을 잃어 생계가 막막해진 소녀들이 생필품을 얻기 위해 조혼과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에볼라로 가족을 잃은 아동들이 겪은 심리적 충격도 상당했다. 조사 아동 대부분은 에볼라 감염에 대한 두려움,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가족과 친구의 사망 목격 등으로 인한 정서적 충격을 호소했다.

열악한 의료 시설도 이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부추겼다. 아동 대부분은 "에볼라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에 가기 두렵다"고 응답했다. 에볼라 창궐 이후 시에라리온은 대부분의 병원이 에볼라 치료에 동원돼 5세 미만 영·유아나 임신부가 제때 의료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사 참여 아동들은 '에볼라 종식을 위해 효과적인 수단을 도입할 것' '아동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것' '보건 시스템 강화 및 지역 의료시설·의료진 확충' '아동 노동 및 착취 중단'을 시에라리온 정부에 요청했다.

조사를 진행한 단체들은 시에라리온 정부가 아동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아이작 오코 세이브더칠드런 시에라리온 사무소장은 "정부의 에볼라 복구 정책이 성공하려면 아이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슬리 스콧 시에라리온 월드비전 회장은 "아이들은 일상 회복을 위해 교육과 의료 서비스,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아이들의 의견을 들었으니 이제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전능자의 그늘' 저자 엘리자베스 엘리엇 별세

20세기 기독교 선교의 전형을 제시하고 경건 서적의 고전이 된 '전능자의 그늘'의 저자, 엘리자베스 엘리엇(사진) 여사가 15일, 향년 88세로 별세했다.



엘리엇 여사는 1956년 남미 에콰도르로 선교를 떠났다가 원주민들에게 창과 화살로 무참히 살해된 순교자 5명 중 한 명인 짐 엘리엇의 부인이다. 당시 남편을 포함한 5명의 미국 휘튼대 출신 선교사들이 순교하자, 엘리엇 여사는 간호사 훈련을 받았고 1년 후 사지(死地)인 에콰도르 동부 아우카족 땅에 들어가 남편과 동료 선교사를 죽인 부족 속에 살며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

엘리엇 여사의 담대한 신앙으로 아우카족 부족민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10년 후엔 5명의 선교사를 살해한 장본인 '키모'는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됐다. 또 순교한 선교사들의 자녀 중 2명이 아버지가 순교한 판 비치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엘리엇의 딸은 아우카족과 함께 살았다. 92년에는 현장에서 신약성경 봉헌예배가 드려지기도 했다.

엘리엇 여사는 20여권의 저작을 남겼다. 남편의 삶과 신앙을 담은 '전능자의 그늘'과 '영광의 문'을 비롯해, 단 한 번의 휴가 없이 53년간 인도 남부에서 헌신한 아일랜드 선교사의 인생을 담은 '에이미 카마이클' 등은 전 세계 크리스천들을 열광시켰고 기독교 선교사의 전형적 모델을 보여줬다. 휘튼대 캐서린 톱(역사학) 교수는 "엘리엇의 작품들은 20세기 후반 감동적 선교 스토리로 각인됐다"며 "복음주의의 가치를 이야기 속에서 잘 그려냈다"고 평가했다.

엘리엇 여사는 1926년 벨기에에서 선교사의 딸로 태어나 휘튼대에서 고전 그리스어를 전공했다. 그리스어를 공부하며 신약성경을 미전도종족 언어로 번역하고 싶은 비전을 품었다. 짐 엘리엇와는 1953년 결혼했다. 아우카족에게 들어갔던 엘리엇 여사는 이후 아우카족이 여성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선교 사역에 매진했다. 부족민들은 이런 그에게 '기카리'라는 이름을 선사했고 엘리엇 여사는 1963년까지 부족과 함께 살았다.

1974년부터 고든콘웰신학교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기독교인과 표현'이라는 강의로 인기를 모았으며, 88년부터 2001년까지는 '기쁨으로 향하는 관문'(Gateway to Joy)이라는 기독교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녀는 방송 시작과 함께 "당신이 받은 사랑은 영원합니다(You are loved with an everlasting love)"라는 말을 항상 남겼다. 별세하기 전까지 10년 동안 치매와 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 "이슬람은 사랑의 종교" 미국신자들 이미지개선 나서

"삶의 해답을 찾으십니까? 그럼 모하마드를 찾으세요." 일부 극단주의 단체의 테러행위로 이슬람교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이슬람교 단체가 포교와 이미지 개선을 목표로 전국적으로 길거리 광고판 세우기 운동에 나서 주목된다.



16일 북미이슬람협회(ICNA)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슬람교가 '사랑과 관용의 종교'라는 메시지를 알리고자 이같은 광고판을 캘리포니아 주도인 새크라멘토에 세웠다.

이미 로스앤젤레스(LA),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마이애미 등 주요 대도시에서 이런 광고판 100여개가 세워졌고, 조만간 샌프란시스코와 댈러스 등지에도 세울 예정이라고 ICNA는 밝혔다.

마이애미에는 "모하마드는 평화, 사회적 정의, 여성의 인권을 믿습니다"라는 광고를, 뉴저지 주 엘리자베스에는 "친절함은 믿음의 표시입니다"라는 광고를 각각 게시하며 이슬람교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에 주력했다.

광고판 캠페인은 지난 1월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로 시사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르' 직원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획됐다.

공교롭게도 새크라멘토의 광고판은 지난달 초 텍사스 주 댈러스 인근에서 열린 모하마드 만평 전시장에서 발생한 총격사건 직후에 세워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아직 ICNA가 세운 광고판이 훼손된 사례는 없지만, 일부 반(反) 이슬람 단체들은 이슬람교에서 금지행위인 모하마드의 그림을 그리거나 이슬람교를 폭력화 결부시키는 내용의 반대 광고도 맞붙을 놓고 있다.

아이오와 주의 루터대학에서 이슬람 증오 현상을 연구하는 토드 그린 교수는 "이런 환경에서 ICNA의 광고 캠페인은 매우 용감한 움직임"이라며 "소수 종교 신자라면 다수를 차지하는 종교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이슬람교도는 현재 0.9%에 불과하지만 오는 2050년까지 신자 수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 멕시코 대법원 "동성 결혼 금지"는 위헌

멕시코 대법원이 동성 간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최근 이러한 판결을 한 것이 알려지자 성 소수자의 권리를 추구하는 멕시코 단체들이 환영을 뜻을 나타내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대법원은 "혼인 생활의 목적이 출산이 아니라면 결혼은 이성 간의 결합이거나 오직 남자와 여자 간에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멕시코는 수도 멕시코시티를 포함해 키타나 루, 과일라 등 3개 주에서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29개 주는 법원의 허락을 얻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해,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

멕시코 정부 차별방지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성적인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에 권리를 부여한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멕시코시티가 동성 결혼을 허용한 2007년 이후 5천300쌍의 동성 커플이 탄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 미 흑인교회 난사 용의자 검거

미국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의 유서 깊은 흑인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 9명을 살해하고 달아난 용의자 달란 루프(21)가 범행 하루만인 18일 오전 검거됐다.



경찰은 루프를 공개 수배하고 대대적인 검거작전을 벌인 끝에 노스캐롤라이나 헬비에서 도주 중인 그를 붙잡았다고 발표했다. 로레타 린치 범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용의자가 검거됐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루프를 검거함에 따라 이번 사건을 '증오 범죄'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미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이 현지 경찰과 공조해 이번 사건을 '증오 범죄'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왜 '증오 범죄'로 보고 수사하는냐는 언론의 질문에 "희생자들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살해됐다"고 밝혔다.

이번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루프가 21세 생일을 맞은 지난 4월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은 45구경 권총인 것으로 알려졌다. 루프는 올 들어서만 두 마약 사용과 무단침입 등으로 2차례 기소된 바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앞서 용의자 루프는 17일 오후 9시께 찰스턴 시내의 '이매뉴얼 아프리카 감리교회'에 난입해 지하 예배실에서 성경공부를 하던 신자들에게 마구 총을 쏘던 뒤 달아났다.

그는 총을 쏘기 전 한 시간가량 교회에 앉아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여성 6명과 남성 3명이 숨졌다. 이 교회의 흑인 목사이자 주 상원의원인 클레멘타 핑크니도 숨졌다. 정확한 수는 파악되지 않지만, 여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모임을 열어왔다.

### 미국 총기난사 흑인교회서 애도 예배

백인우월주의 청년의 총기 난사로 흑인 9명이 숨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시의 이매뉴얼 아프리카 감리교회가 21일 참사 후 첫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참사로 숨진 클레멘타 핑크니(42) 목사를 대신해 연단에 올라선 노블 고프 목사는 "어떤 악마도 이 교회의 문을 닫을 수 없다"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좌악을 극복하자"고 설교했다. 이어 "기도만이 비극적 상황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자신의 변화도 가져올 것"이라며 "희생자들의 피로 우리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배가 진행된 교회의 벽 곳곳에는 비극적 사건을 생생히 보여주는 총흔이 눈에 띄었다. 평소 핑크니 목사가 앉았던 좌석은 검은 장막으로 덮여 그의 부재를 드러냈다. 경찰들이 교회 양쪽 통로에 배치돼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수천 장의 편지가 교회 입구의 현수막을 덮었다. 찰스턴의 지역교회는 이날 오전 애도의 종을 울렸다.

현지 언론은 이날 미국 애틀랜타, 시카고, 포틀랜드 등 곳곳에서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고 인종 증오에 반대하는 예배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이날 예배를 통해 사랑과 치유, 회복의 메시지가 미국 교회 전체에 전파됐다"고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 주 의회 신학교 신자들은 애도 염서를 이매뉴얼교회에 보냈다.

이날 밤에는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정의를 호소하는 '통합의 인간사슬' 행사가 열렸다. 수천명의 군중들은 찰스턴에서 아서라벨리주니어 대교를 지나 아이오와주 마운트플레전트까지 손을 맞잡고 다리 양쪽을 걷는 행사를 가졌다. 시민들은 다리 한가운데에서 만나 박수를 치며 어린이 복음성가이자 민권운동가 로버트 케네디의 '이 작은 나의 빛'을 함께 불렀다. 핑크니 목사 등 희생자 9명의 장례식은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달란 루프(21)는 지난 17일 밤 이매뉴얼 아프리카 감리교회에서 성경공부 중이던 핑크니 목사와 교인들에게 총을 쏘던 뒤 달아났다. 경찰에 검거된 루프는 "인종전쟁"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핑크니 목사는 아내와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23세 때 주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이매뉴얼아프리카감리교회는 해방 노예였던 덴마크 베시 등이 1816년 설립한, 미국 남부에서 가장 오래된 흑인교회 중 하나로 흑인민권운동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 IS, '요나의 무덤' 을 놀이공원으로

수니파 급진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지난해 7월24일 파괴한 유적 '요나의 무덤' 터에 놀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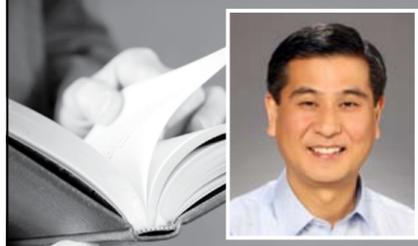


카이스 후사인 이라크 문화재·관광부 차관은 20일 "다에시(IS의 아랍어약자)가 요나의 무덤을 놀이공원으로 바꾸려 한다는 정보를 여러 건 입수했다"고 말했다고 현지 매체 알사우마리아 방송이 전했다.

이 방송은 모술을 주도(州都)로 둔 니네베 주의 현지 소식통이 IS가 요나의 무덤을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특별 예산을 편성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했다는 제보를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요나의 무덤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요나가 문헌 것으로 구절되는 모술 동부의 나베 유누스(요나의 아랍어식 발음) 모스크. IS는 지난해 6월10일 이라크 제2도시 모술을 점령하고 나서 기원전 8세기 무렵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적 유적을 이단 시설이라며 폭파해 국제 사회를 경악시켰다.

요나의 무덤을 폭파한 행위는 IS가 이라크와 시리아를 점령하면서 지행한 유적·유물 파괴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 교회역시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24)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 1. 초대 교회 - 교부(7) 변증교부, 콰드라투스

“믿음이란 무엇인가?”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기에 매우 어색하다. 믿음이란 단어는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각 종교마다 독특한 ‘진리’를 주장한다. 그러므로 다른 각도에서 질문해보자.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진리이다.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 믿사오니!”를 주장하는 맹신적인 믿음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반면에 무엇을 아는 것 자체가 믿음도 아니다. 믿음은 성경의 진리를 분명하게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질문: 초대교회의 초기 변증교부들은 기독교가 지닌 진리의 독특성을 다른 종교와 구분하여 증명하려 하였는가?

1) 콰드라투스 - 변증가의 아버지

변증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가 옳은 것임을 증명하는 학문이다. 초대교회 변증교부들의 사명도 동일하였다. 그들은 시대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활동하였다. 성경의 정경화가 이뤄지지 않았던 시기에 그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가 바로 이것이라며 내보여줄 수 있을만한

문서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활동해야 했다. 자연히 기독교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요약한 변증적인 문서를 기록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콰드라투스(Quadratus)는 변증문서를 작성하는 책임을 통감하고

최초로 실천에 옮긴 교부이다. 그는 아테네교회의 감독이었다. 아테네는 전통적으로 그리스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다. 현존하는 기독교와 관계된 방대한 저술가운데 180년까지는 한 가지 언어로만 기록되었다.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에 의해 전파되어 그리스 식민지에서 널리 사용되던 코이네 고대 헬라어이다.

그리스는 전통적으로 신화를 중심으로 다신교적 종교가 형성되어 왔다. 제우스, 아폴로, 포세이돈, 헤르메스, 디오니소스 등 많은 여신과 남신들에 대한 신화는 우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 거리로 이해되지만, 그들의 신앙체계를 형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콰드라투스가 아테네 교회의 감독으로 부임하기 전, 아테네 교인들은 신앙적 혼동을 겪었다. 그들의 감독이었던 푸블리우스가 순교를 당한 것이다. 영적 지도자의 부재는 간혹 영적인 각성을 주기도 하지만, 정반대의 현상을 보일 때도 있다. 아테네 교인들은 어떤 방

콰드라투스에 대한 기록을 수록하고 있다. 유세비우스는 콰드라투스가 섰던 아테네교회의 신자들이 영적 지도자의 부재로 인하여 타락의 길을 선택하였지만, 결국 그의 사역이 큰 열매를 맺었으므로 그들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고 신앙의 성숙이 이뤄졌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유세비우스의 객관적인 평가는

## 기독교 변증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우선

## 초대교부들,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집중하는 체험적 변증 복음의 파워를 믿는 믿음과 복음의 접촉점 확보가 변증기본

향을 선택하였을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면서 경험한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다. 아테네 시민들은 다른 도시 국가의 시민들보다 훨씬 종교성이 강했다. 도시 전역에 우상이 세워져 있었다. 더욱이 그들은 나아가서 헬라 철학을 마음 깊이 숭상하였다. 에베구레오 학파는 쾌락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신이 인간의 생활에 전혀 관여하지 않다고 믿었던 것이다. 반대로 스토아학파는 범신론자들로서 신이란 실체가 아닌 일종의 ‘정신’이라고 주장하였다.

지난 호에 소개한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그가 저술한 “교회사”에

콰드라투스가 어려운 시기에 교인을 잘 섬긴 훌륭한 목회자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러나 유세비우스의 관심은 콰드라투스가 로마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아테네를 방문하자 변증서를 기록하여 그에게 바쳤다는데 있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탁월한 통치자였으며 지식인이었다. 그럼에도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어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을 처형하였다. 그의 압박 방법은 그의 수하에 있는 총독들을 충동질하는 것이었다. 현존하는 그의 칙령가운데에는 기독교인들을 발견하면 무조건 처형하되, 체포 후 개종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배교의 길을 걷을 수

있도록 허락하라는 것이었다.

콰드라투스가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용감한 행동이었다. 왜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글을 기록하였을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세비우스는 어떤 기독교에 어려움을 주려는 가진 자의 악한 행동 때문이었다고 전한다.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콰드라투스의 변증서는 유세비우스의 책에 수록된 일부에 불과하다.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의 사역은 항상 현존한다. 그것은 참된 것이기 때문이다. 병고침을 받은 자들과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이...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주님이 떠나신 후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살

아테네인들은 신화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콰드라투스가 변증하는 기독교는 초월적인 하나님과 영원한 진리의 가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으로 집중하였다. 이와 같이 초기 초대교회의 변증은 소설과 같은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대상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였다.

2) 성경이 보인다 - 사도행전 17장 16-34절

복음은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어떤 방해물이라도 뛰어넘는다. 결국 믿음이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의 방법과 마음을 쓰는 방향이 성경의 진리로부터 아주 멀리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다.

강요나 협박으로 기독교 신앙을 믿도록 할 수도 없다. 우리가 지닌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중의 하나는 복음이 지닌 파워를 믿는 것이다. 동시에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복음의 접촉점을 확보하는 것이다. 바울은 헬라 철학에 붙잡혀 있던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익숙한 철학 자체를 접촉점으로 활용하였다.

접촉점은 기독교 변증에서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접촉점을 찾는 목적은 복음에 대한 설명 때문이다. 만일 모든 성도들이 바로 기독교를 변증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 정말 그랬을까?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11)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 아말렉 군대와와의 전쟁이 희한한 전쟁인 진짜 이유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하는 도중에 아말렉 군대를 만났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터로 내보내고 자신은 그들이 싸우는 것이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갔다. 모세가 기도의 두 손을 높이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출17:8-16). 전쟁의 승패가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군인들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기도로 이겼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앞에 어떠한 아말렉이 길을 막고 있어 기도도의 힘으로 그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설교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정말 아말렉 군대는 최강의 막강

한 군대였을까? 그들은 광야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었을까?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다. 양을 치면서 사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도 볼 수 있다. 바로 베두인들이다. 그들은 평생을 조상 대대로 몇 천년 동안 세상 문화를 등지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 네게브 광야, 시나이 반도, 요르단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광야에서 양을 치는 베두인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아말렉 족속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오늘날 베두인 족속들 조상조는 사람들로 이해하면 틀림없다.

이들은 양을 통해서 의식주 문제를 거의 해결할 수 있지만 푸른 채소는 먹을 수 없다. 광야에서 채소를 가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략질을 해야만 했다. 미디안 족속(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이 추수 때만 되면 그 먼 곳에서 이스라엘의 이즈르엘 평야까지 쳐들어온 것도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고대의 베두인들은 약탈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전사들이 많았다. 그들은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광야에 살고 있는 아말

렉 족속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는가? 몇 천명 정도였을 것이다. 몇 만명씩 광야에서 모여 살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날 때 적어도 장정만 60만명이었다. 60만명이라는 숫자는 고대에 엄청난 숫자였다. 당시 이집트의 병력과 맞먹는 숫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끼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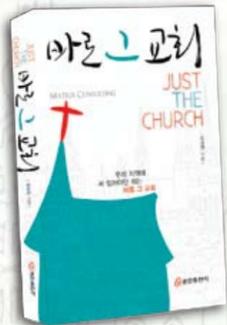
이스라엘 장정 60만명이 몇 천명의 아말렉 군대와 맞붙어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 싸우고 말고 할 것도 없다.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그들이 사는 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아말렉 군대는 왜 쳐들어왔을까? 도망가야 하는 것인가?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악한 자들을 쳤고”(신25:18).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벌인 것이 아니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다 지나갈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후미를 쳤다. 광야 길에 다 지쳐 있을 것 아닌가? 부상자도 있었을 것이고 병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노약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대열의 맨 뒤에 뒤쳐져서 따라가고 있었을 것이다. 아말렉이 쫓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친 것은 바로 절대적인 숫자적 열세 때문이다.

아마 모세는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가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아말렉 군대와 전투를 벌였을 것이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지시한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출17:9). (8면으로 계속)

# 사람과 교회와 선교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필독서!



### 바로 그 교회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하는 교회 세우기 목회 컨설팅!

김성진 지음 / 416면 / 15,000원

중소형 교회가 많은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그 지역에 맞는 <바로 그 교회>를 세워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 성장할 수 있다는 최상의 가이드북.

중소형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전제로 목회자에게 목회의 타깃을 명확하게 하고, 목회의 ABCDE를 강화하고, 전략적 사고가 매우 중요함을 역설한다.



### 이슬람 끌어안기

매우 균형감 있고 현실적인 무슬림 선교의 필독서!

조르주 후스니 지음 / 신동철 옮김 / 280면 / 12,000원

현재 미국 내 무슬림, 그 중에서도 미국으로 유학 온 이슬람권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 사역을 수십 년째 해온 베테랑 사역자가 최근에 펴낸 첫 번째 저서이다.

대한민국으로 몰려오는 외국인 근로자 20퍼센트는 아시아의 이슬람권 출신인 현실 속에 국내 무슬림 전도 사역에 영감과 도전을 줄 특별한 책이다.



### 목적을 찾아가는 삶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유인 되게!

안중필 지음 / 264면 / 12,500원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목적을 찾아가려면 필수도구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목적을 방해하는 장애물도 알고 있어야 한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출발선에서 머뭇거리며 고민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한 두 번씩 일을 시작했다가 실패하여 좌절하는 이들, 또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찾아 줄 책이다.

# 제자훈련, “시스템” 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 리더십저널, M. 윌킨스 분석 ‘다른 제자’ 4가지 유형과 해결안 소개

제자 훈련 즉 “제자도”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선택 사항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특별한 제자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제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없다. 이것은 특정한 제자훈련을 받았느냐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바로 마이클 윌킨스가 말한 대로 “제자도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제자도 없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을 구비시키고 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키기 위해 제자훈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종종 제자 훈련 수료자를 배출할 뿐,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를 키워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시스템화의 한계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의 모습은 그리스도가 지상사역을 하시던 시대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다고, 제자도 연구에 평생을 다한 마이클 윌킨스는 말한다.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네 유형의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특정 방식과 사람만을 고집하며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다른 제자”의 첫 번째 유형은 헌신적인 전통주의자라 할 수 있는 모세의 제자이다. 이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유대인의 혈통에 의지했다. 또한 자신의 지위와 특권에 초점을 맞추는

고 적응한다. 물론 연구나 적용은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이다. 그러나 말씀 연구가 자신의 지적 우월감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 말씀의 실천이 구원 획득의 공로가 되는 율법주의의 함정이 되지 않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야 한다. 세 번째 유형은 운동 참가자들로서, 세례 요한의 제자이다. 이들은 개인적인 말씀 연구와 실천의 단계를 넘어 집단적인 영적 운동과 흐름

고 생각하면 이들은 곧바로 그분을 떠나버린다. 리더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네 유형이 모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네 유형 모두 종교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다. 누군가 교회의 방향을 잘 따른다고 해서, 리더와 함께 행동할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들이 모두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멤버를 만들고 있는가?

우리의 멤버들은 프로그램에 능숙한가, 아니면 예수님과 철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에 능숙한가?

우리의 시스템에 대해 소속감과 애착을 갖는 것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를 하도록 이끄는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 프로그램이 중요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와 우리 프로그램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보고 따르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인가?

결국 시스템 속에 있는 리더는 역설적으로 시스템에 대해 항상 경계해야 한다. 시스템은 경험과 통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행동 양식이 된다. 공동체가 커질수록 시

#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믿음으로 승리한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목자로 양치며 인간적인 모든 잘난 것을 벗기고 의지할 것이란 하나님밖에 없는 광야훈련 받을 때 애굽에서 태어나 종살이의 뼈아픔을 겪었습니다. 80세 모세의 등장과 더불어 여호수아가 40세에 출애굽 합니다.

그는 늘 모세 곁에서 가까이 수종을 들으며 모세의 출애굽 사역의 대소사에 측근 동반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들을 가나안 복지로 이끄는 민족의 영도자로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된 모세의 사역 길입니다. 고된행인 모세가 그저 하나님께 의지하며 자신을 믿음으로 다잡으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그런 모세와 대면하여 말문을 인도하고 힘주어 필요할 모든 쓸 것을 영육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출애굽의 산증인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고민하며 얼치락덜치락하며 움직이는 감정과 싸우며 때려내고 싶던 모세에게서 한 발 나아가 여호수아는 어느 상황에서건 하나님이 함께하시던 불가능은 없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 능력을 모세의 사역을 통해 경험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약함에 신경 쓰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큰 믿음을 붙잡고 자신도 세우고 주위 모든 사람도 세우고 모세까지도 격려하여 세워줍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해 보일 상황이면 여호수아는 더욱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기회로 여기며 하나님을 앞장세워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어느 누구라도 자신에게 있어 보이는 능력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내가 약하기에 그 분이 하나님 되심을 더욱 빛내드릴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나 제의 없이 전능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깔아드릴 것이니 믿어드리는 만큼 보잘것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이인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신다면 우리의 할 일은 그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함께 싸워주실 것을 믿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천국 확장 사역에 헌신하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이룬 사역의 열매를 자신이 것으로 보며 눈에 성이 차지 않아 자존심 상해하며 자신의 능력 부족 탓, 도움 받을 줄이 없는 탓,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무능한 모습에 온 시선이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의 모세라도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땐 현실 도피 해버리고 우울증에 자신을 던지고 열등감으로 자신을 가두어 두려워합니다. 하나 별 카리스마도 능력도 지도자로서 어떤 훈련도 받지 못한 무식한 노예출신 머슴 정도가 위대한 모세를 따라 다니며 그의 세상적인 리더의 자적 훈련보다는 그러한 능력인도 제아무리 능력이 대단해도 그 많은 이들을 인도해내기에 불가능한 무능력만 차다보고 고민하며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얼굴을 처박고 앞드리는 모세의 모습과 그러한 저를 붙들어 일으켜 힘주시고 모든 그의 열려가리를 채워주시고 책임져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박자 맞추어 그대로 준행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비밀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신에 감동된 자라 극찬하시며 그의 믿음에 힘을 실어 정말로 신나게 함께 싸워주시지요.

여호수아의 적극적이고 밝은 믿음은 비록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는 적을지라도 모든 지도자급 사람들의 마음으로 부러워 팀워크를 얻어내기에 합당한 진정한 리더가 되어 모두가 힘을 합쳐 가나안 정복을 해냅니다.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믿음의 단순세포로 살아가는 리더가 오늘날 더욱 너무도 절실합니다.

## ①헌신적 전통주의자 ②학구적 종교주의자 ③운동 참가자 헌신적 혁명가 예수님과 철저한 관계 맺음 능숙...시스템화 경계, 반복적 목표 점검 중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그 지위와 특권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주어졌음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었다. 오늘의 상황에 적용시킨다면,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의 문화와 가르침에 익숙하다 보니, 은연 중에 자신은 관중이고 여긴다. 이들이 당면하는 위험성은 영적인 것에 친숙하기에 예수님의 존재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다. 특히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식에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

두 번째 유형은 학구적 종교주의자들로서, 바리새인의 제자이다. 이들은 매우 헌신적으로 말씀을 연구

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소속감을 충족하고, 영적 분별의 책임을 전가한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헌신하기보다는 운동 자체, 흐름과 분위기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네 번째 유형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헌신적인 혁명가이다. 이는 열심당원이나 가톨릭 유대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들의 첫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가정과 직업, 심지어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자신의 조건에 맞고 기대가 충족될 때에만 그렇게 한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고방식에 따라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방식과 맞지 않는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

리더는 시스템 안에 있더라도 ‘시스템화’를 경계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더라도, 언제나 목표를 반복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의 목표는 프로그램이나 운동의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리더 개인의 목표이자 멤버 개인의 목표이며, 우리 그룹, 교회 전체의 목표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인 모두의 목표는 다른 우상을 버리고 길고이로 진리요 생명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점검하는 데 유용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시스템을 따르는 멤버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시스템

을 피할 수 없다. 성경도 시스템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주’가 되는 제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제도주의에 빠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시스템으로 구성된 익숙한 모습과 다른 모습을 기계적으로 거부할 때, 시스템에서 계산된 비용을 넘어서는 비용 지불을 습관적으로 거부할 때, 리더는 자신이 제도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때때로 계량화되고 가시화된 시스템이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과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7면에서 계속)

다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일부만 나가서 싸워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 전쟁은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다. 아니 전쟁을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

는 전쟁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하게 하셨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의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하셨던 것이다.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패배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희한한 전쟁이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병력이나 무기가 전라 때문이 아니었다. 기도로 이겼다. 아무리 무기가 좋고 병력이 많고 전략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도 이렇게 만드신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삼상17:47).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신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

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하게 하신다. 실패하게 하신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기도한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지 않는다. 아말렉 전쟁이야기는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뿐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메일: jinlee1004@yahoo.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usa@yahoo.com / www.lalgco.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9:30 수-일예배: 오후 7: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영양)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일예배: 오후 7:30(영양) 새벽기도: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 오전 5:30 영양예배: 오전 5:30 EM, 내담부: 오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ym) / www.nachimban.org		
<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380-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S@rock@gmail.com	<b>남가주리더교회</b>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www.scrdm.org Tel: (213)215-8202, Fax: (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b>남가주사망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영양예배: 오전 9:30, 11:30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7-7777, Fax: (714)777-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pc.org	<b>동원교회</b> 담임목사: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5:30 새벽기도회: 오전 6:30(토) 금요일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7 www.egkpc.org	<b>디아스포라선교회</b>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예배: 저녁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4:00 Tel: (213)559-7728 (213번 경향), Fax: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b>드림교회</b>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9:30 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b>미주양광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베일) Tel: (949)857-3425 / Fax: (949)857-3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주일 4부: 오후 2:00(다목적방)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8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0577 3521 Lomita Ave., Torrance, CA 90505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성일예배: 오전 11:00 내담부예배: 오후 1:00 영양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b>복음성령교회</b>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다목적방)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Torrance, CA 90020
<b>얼바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3425 / Fax: (949)857-3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b>윌셔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목적방)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주일 영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은혜채광예배: 오후 24시간 온로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org	<b>좋은마음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일예배: 오후 7:30(영양)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후 7:30(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 www.samsungchurch.org Tel: (714)646-8289 Fax: (714)646-8284 16800 Im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b>코넬리스트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일예배: 오후 5:30(월-토) www.cornelists.org / e-mail: pastor@cornelists.org Tel: (310)530-4000(CH), Fax: (310)530-3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양)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 인터콥 교류금지, 동성결혼 반대 결의

## CKSBCA 제34차 정기총회, 총회장에 김상민 목사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CKSBCA, 총회장 위성교 목사) 제 34차 정기총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영적축제!'라는 주제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산호세소세 뉴비전교회(담임 이진수 목사)에서 열린 신임총회장에 김상민 목사(웨이트힐 제일침례교회)를 선출했다.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제34차 정기총회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이번 총회의 관심사였던 인터콥과 동성결혼 문제는 17일 오전 11시에 속개된 총회에서 인터콥 문제는 교류금지, 동성결혼은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개회예배는 첫날 저녁 김상민 목사 사모로 시작돼 준비위원장 고상환 목사가 환영사를, 황준석 직전회장이 설교를, 그리고 광도회 한국총회장이 축사를 했다. 이어 공로패 증정, 총회대의원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열린 컨퍼런스는 유관제 목사가 강사로 나서 전체 강의를 인도했다. 또한 여성교회 프로그램도 열렸다. 둘째 날 저녁예배는 고

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와 유관제 목사(성광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셋째 날 저녁집회는 고명진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청소년 발표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제34차 미주 한인침례교회 총회 새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김상민 목사(웨이트힐 제일침례교회) △제1부총회장: 반기열 목사(인디애나폴리스 한인침례교회) △제2부총회장: 유혁동 목사(씨애틀 제일침례교회) △서기:

김태두 목사(그린우드한인침례교회) △회계: 김경도 목사(루이스빌 한인 제일침례교회) △감사: 정윤태 목사(털사한인침례교회).

지난해 제1부총회장이었던 이날 총회장으로 뽑힌 김상민 목사는 "복음 안에서 기쁘기도 하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든 회원교회 간 협력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데 헌신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정리: 박준호 기자)



PCA-CKC 조찬 모임을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 PCA 제43회 총회, 한인교회 대거 참여

PCA(미국장로교) 제43회 정기총회가 지난 6월 9일부터 12일까지 테네시 차타누가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한인교회(PCA-CKC)도 전체 회의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총회에 참석했던 나성균 목사(살라탄 한인교회 담임)는 "마지막 신앙을 지키는 보루 교단 중의 하나

나로서, 보수 신앙을 지키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문제들을 대처해 나갈지를 진지하게 토의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다종족 복음화를 위해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가를 더욱 진지하게 다루기 위해 개최된 세미나는 모든 회원들에게 유익을 크게 주며 많은 것을 새롭게 변화되도록 만드는 도전의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NCKPC 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광복70주년...디아스포라 한인이민교회의 사명"

### NCKPC 44회 정기총회, 새 총회장 배현찬 목사

제 44회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전국총회(National Council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Presbyterian Churches U.S.A., NCKPC) 정기총회 및 전국대회가 워싱턴 돌레스 공화 힐튼 호텔에서 16일부터 19일까지 열렸다.

"광복70주년을 맞이하는 디아스포라 한인이민교회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각계각층의 강사들이 초대돼 강의를 인도했다. 주강사로 참여한 옥성득 교수(UCLA 한국기독교 석좌교수), 주승중 목사(한국주안장로교회)는 "미주 한인교회의 시대적 과제와 교회의 복음의 회복"에 대해 도전했다.

또한 임춘식 선교사(북한선교), 임창호 목사(북한 인권), 배현찬 목사(이민교회의 사회선교와 동해빙기 캠페인 사례), 한태진 목사(통일과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역할), 이정렬 목사(여성 인권), 조문길 목사(교단정책과 한인교회의 창조적 대응), 박길재 목사(G2G)는 소그룹 워크숍을 통해 한인 이민교회의 다

양한 선교사역 현장을 소개하고 협력을 독려했다.

이외에 대의원들은 수요일 오후 워싱턴 내셔널몰 6.25참전유사 기념비를 방문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목요일 오전에는 교단 특별대책위원회의 보고를 통해, 최근 교단내 동성결혼관련 헌법수정에 관한 한인교회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구체적인 목회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행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국내외 복음주의 교단과의 협력을 공고히 할뿐 아니라, 미국장로교 안의 복음주의 단체와 연대해 보다 적극적인 복음주의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장로교 헌법의 개방성을 반영해, 동성결혼 주례나 시설 사용은 개 교회 목사와 당회의 신앙 양심에 따라 불허해야함을

결의했다. NCKPC 이번 총회에는 400여 미국장로교 한인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 평신도 대표 280명과 형제교단인 한국 예장통합 총회장(정영택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황용대 목사), 재일대한기독교회 총간사(김병호 목사),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김종훈 목사)이 참석해 축하했다.

또, 미국장로교단역사재단, 기금관리재단, 자유로운커버넌트 그룹 대표와 복음주의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헬로우십 그룹의 대표들도 참가해 교단 소식을 함께 나눴다. (기사제공: NCKPC)

## 미드웨스트대학교 2015년도 학위수여식 학사 5명, 석사 21명, 박사 6명 총32명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설립자/총장, 제임스송 박사) 2015년도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6월 12일 본교가 위치한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렸다. 동 교는 1986년 세계선교의 비전을 갖고 개교했다.

이날 오후 3시 오명환 교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된 학위수여식은 Mr. Rolfe Kiehne 기도, 본교이사장 Lindell Shumake 미주리주 하원의원의 메시지, 제임스송 총장의 졸업생들에게 주는 격려사와 웬츠빌 시의 Nick Guccione시장의 축사, 본교 이사 Earl Haskin 박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번 졸업생은 학사학위 5명, 석사학위 21명, 박사학위 6명 등 총 32명이 학위를 받았다.

학위수여식에 앞서서 일주일에 걸친 졸업 세미나가 진행됐다. 한국을 위시해 캐나다, 필리핀, 파키스탄, 중국, 영국,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와 미국 내 여러 주에서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선교사와 목회자, 그리고 복음사역자들로서 예수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 완수

를 위해 교육선교 현장에서 몸과 맘을 다해 열심히 뛰고 있다. 학위수여식 후에는 미주총동창회장이 제공한 저녁 만찬을 통해 모든 참석자들이 교제를 나눴다. 이어 오후 7시부터는 지역 교회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교 개교 29주년 "2015 미드웨스트 섬머 뮤직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제임스송 총장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한편 동 대학교 졸업생들의 안수기관인 국제복음주의협회(IEA) 제 53차 목사안수식이 목사후보자 교육과 함께 같은 기간에 열렸다. 이번 안수자는 남녀 8명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전문직으로 재직하는 이들과 해외선교사, 교회에서 전임사역을 하는 이들로써 본인들이 국제복음주의협회(IEA)에 청원해 목사고시를 치르고 특별교육을 거쳐 목사안수를 받았다.

IEA에서는 교파를 초월해 전문분야에서 사역하는 남여를 위해 목사안수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기사제공: 미드웨스트대학교)



풀러신학교에서 열린 이단대책 세미나에서 진용식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 "교회, 신천지 대처 무방비 상태"

### 풀러신학교 이단대책 세미나, 강사 진용식 목사

풀러신학교(총장 마크 레버튼 박사) 주최 이단세미나가 15일 오후 6시 본교 페이튼홀에서 열렸다. 박기호 교수(본교 신교대학원 한국학부 디레터)의 강사소개를 시작으로 이단대책 세미나는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대표회장)가 강사로 나서 '신천지 추수꾼 예방 및 대처 대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진용식 목사는 "신천지 문제는 교회에서 대처를 전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신천지가 교회에 침투하면 반드시 교회는 깨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형편이고 목회자 역시 이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무방비상태"라고 지적했다.

진 목사는 "LA역시 신천지교인이 천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그중 80%가 교회에 등록해서 활동 중"이라며, "신천지는 1년에 2만 명씩 신도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16만 명이 넘는 상태다. 많은 교회들에서 교인들이 신천지에 미혹되어 넘어가고 있다. 그들은 빼앗긴 영혼이며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 문제는 그들은 우리를 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모른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천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공부에 참

여하지 않아야 한다. 많은 경우 CCC나 예수전도단 등 선교단체를 사칭해 성경공부를 하는데, 모르고 들어갔다가 신천지교인이 될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교회중심의 신앙을 갖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 목사는 "보통 신천지교육을 모두 받으면 신천지교인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다. 그것은 교육을 모두 받은 자들이 '뭔가 이상해'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성경공부를 제대로 시켜서 굳건한 구원관을 심어줘야 한다. 또한 6개월에 한번씩 이단대책세미나를 연다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게 되는 위험은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회 내에 신천지적발 사례를 언급한 후 "혹시 교회에서 신천지교인으로 적발된 자가 나오면 무조건 내보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며 "적발된 신천지교인은 이단상담소에 상담을 받도록 권면하고, 권면을 받아들여 상담을 받게 되면 90%가 다시 정통 기독교인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충분한 권면을 했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출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베데스다대학교 2015년 제38회 학위수여식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베데스다대학교 2015년 학위수여식

### 총 53명 학위수여, 김영도 장로 명박 받아

베데스다대학교(총장 송영준 목사)는 2015년 제38회 학위수여식 및 졸업예배를 20일 오전 10시 부록허스트 커뮤니티센터 강당에서 가졌다. 신학과장 김신호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켈 일터 교수가 기도 및 성경봉독을 했으며 박해숙 교수가 특송을, 송영준 총장이 설교했다.

이어 김현혜 교무과정의 사회로 열린 2부 학위수여식은 본교음악과 학우 박수진 자매가 미국국가를 불렀으며, 김현혜 교무과장이 학사 보고를, 송영준 총장이 학위수여를 했다. 김영도 장로의 명예박사학위 수여가 있었다.

이어서 이경은 학우가 졸업생 대표로 인사했으며 정인옥 부총장이 격려사를,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담임)가 축사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송영준 총장의 축도로 마

쳤다.

다음은 학위수여자 명단이다. △명예박사: 김영도 △목회학석사: 정재혁, 이덕원, 홍세라, 임경숙, 김정희, 명승권, 김연경, 박상준 △음악석사: 이상우, 이유나, △신학석사: 안혜정, 김순옥, 조혜진, 이경은, 임수현, 백종현 △경영학석사: 레이몬드 차베스, 이동영, 로제스 에두아도, 김은정, 이상희 △신학석사: 엄다훈, 김지은, 박지원, 백형준, 김지현, 박세준, 황원일, 김송영, 장지은, 권은지, 앤드류 양, 강건형, 이형숙, 윤자솔, 다니엘 김, 이혜경 △디자인학사: 김보민, 김은아, 이다원 △음악학사: 원예정, 케일라 한, 강창우, 이진우, 진선미, 강현선 △유아교육학사: 강웅모, 박수영, 박성은, △IT학사: 다니엘 차베스, 최승규. (박준호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6월 월례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보배로운 믿음으로 사역하자"

###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6월 월례모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가 18일 6월 월례모임을 갖고 페루 아동후원 선교지 방문 등 일정을 논의했다.

1부 예배는 김홍석 목사 인도로 기도 권케더린 목사, 설교 김영환 목사, 합심기도 김수경 목사, 축도 김수태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영환 목사는 "보배로운 믿음"(약2:14-2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가 기독교인인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우리 기아대책 사역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은 세상의 어떤 보배보다 귀하다. 그러나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어떻게 그 믿음을 갖는가? 1)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 2)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3)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회의는 전희수 목사 개회기도 후 김영환 사무총장의 업무보고, 권케더린 회계의 회계보고에 이어 9월중 한국 기아대책 회장 뉴욕방문, 할렐루야대회 장소에 홍보책자 안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폐회기도를 맡은 박마이클 목사 인도로 △항영진 선교사(예과도) 사역을 위해 △기쁨과영광교회(전희수 목사, 권케더린 목사) 증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6월 현재 해외아동 111명과 북한아동 6명 등 총 117명을 후원하고 있다.

동 기구 7월 월례모임은 30일(목) 오전 10시30분 킨즈침례교회(담임 박진하 목사)에서 열렸다. (유원경 기자)

# “목회자 자녀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 뉴욕목사회 제2차 임실행위 및 장학금 수여식

뉴욕목사회가 지난 17일 제 2차 임실행위위원회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목사회는 목회자 자녀 24명에게 총 1만2천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회장 이만호 목사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며, “목사회 회장선거 공약 중 하나인 장학금을 수여하게 됐다. 목사회는 회원간 연합과 소통, 화합을 추구하며 선배 목사들을 잘 모시고 함께 기도하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1부 예배는 부회장 김영환 목사 인도로 기도 허윤준 목사, 특송 뉴욕목사합창단, 말씀 김수태 목사, 축도 이승재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수태 목사는 “하나님의 기쁨인 목회자 자녀”(출18:2-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우리 자녀들도 같이 부르셨다”며, “출애굽 후 모세에게 쏟아 부는 백성들의 불평불만이 많아 첫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은 이 민족회자의 자녀로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러나 둘째 아들 엘리아셀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도 있었다. 그저 부모 따라 목회현장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치유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부 임실행위는 김상태 목사의 개회기도, 회일점명 서기 김진화 목사, 사업보고 총무 김연규 목사, 회계보고, 합심기도 전희수 목사, 광



뉴욕목사회가 수여하는 목회자자녀장학금 수혜자들과 목사회 임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고, 폐회기도 신현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사업보고는 △선전보림교회(1/22) △구정울빛교회(2/19) △임원기도회(3/31) △야외전교모임 및 기도회(4/28) △미동부 5개주 연합체육대회(5/11)가 있었다.

회계보고는 2만2천여 달러의 수입이 있었으나 이번 장학금 수여로 마이너스 재정을 갖게 됐다고 보고했다.

3부 장학금 수여식은 김연규 목사 사회로 이만호 회장의 인사말과 김진화 목사의 경과보고, 축사 이재덕 교회회장, 격려사 황경일 중경회장, 비전메시지 리온 제이미, 특주 유상열 목사, 장학금 수여, 학생들을 축복기도 이광희 목사, 폐회 및 오찬기도 이승명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학금은 총 20명에게 1만 달러를 수여하기로 계획했으나 이날 24명에게 수여됐다. 신청자는 모두 31

명이었으나 서류미미 및 타주 신청자는 제외됐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장학금 수혜자 이름은 다음과 같다.

권오창(웨스트민스터신학교), 김민주(NYU), 김예진(퀸즈칼리지), 김은혜(나약칼리지), 김조셉(코넬대학교), 김진경(퀸즈칼리지), 박기쁨(시티칼리지), 박예은(브루클린칼리지), 박진호(고든웰신학교), 서홍(맥커라이아날스칼리지), 송재홍(퍼듀유니온), 안모세(버룩칼리지), 유지은(방햄튼대학교), 이상원(사우스폴로리아대학교), 이영록(웨스트민스터신학교), 이윤성(위싱턴대학교), 임정은(스토니브룩대학교), 임예림(코넬대학교), 임은중(헌터칼리지), 정다솔(퀸즈칼리지), 자유리아(퀸즈칼리지), 최사룬(릿거스치대), 한지영(헌터칼리지)가 나다순.

(유원정 기자)

# 씨존, 목회와 선교위한 스마트폰 무료강좌

## 7월 2일부터 38기/중급, 39기/초급 시작

씨존(대표 문석진 목사)의 목회와 선교를 위한 스마트폰 무료강좌 36기, 37기가 6월 11일까지 4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강사 문석진 목사는 “크리스천의 스마트폰 활용법”을 강의 주제로 스마트폰을 소지한 완전초보자 또는 스마트폰 활용에 미숙한 사람을 대상으로 강의했다. 주요강의 내용은

안드로이드폰(삼성 갤럭시폰, LG 폰, 모토로라)위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찍기, 보내기(텍스트, 카톡), 앱 다운로드받기, 성경보기, 신문/TV/라디오/유튜브 보기, 주소로 지도찾기, 이메일 사용하기 등이었다.

새로 시작하는 스마트폰 중급반(38기)과 초급반(39기)은 7월 2일(목)부터 23일(목)까지 4주간의 일

정으로 뉴욕기독교방송국(CBSN, 163-07 Depot Rd. #B-2)에서 열린다.

강의 시간은 중급반은 오후 2시 10분-3시 30분(80분), 초급반은 오후 3시 40분-5시(80분)이며 신청마감일은 6월 30일(화), 각 반 선착순 6명.

수강료는 무료이나 방송선교 후원비로 30달러를 내면 된다(세금공제).

문의: (347)538-1587, 이메일 newyorktop@gmail.com (기사제공: 씨존)



뉴욕전도대학교 제 7회 졸업식을 마치고 졸업생, 재학생, 교수들이 기념촬영 했다.

#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는 자 되라”

## 뉴욕전도대학교 종강 및 제 7회 졸업예배

뉴욕전도대학교(학장 허윤준 목사) 종강 및 제 7회 졸업예배가 23일 오전 10시30분 뉴욕 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려 3명이 졸업했다.

허윤준 학장은 “2006년 시작된 뉴욕전도대학교가 2015년까지 7회 졸업식을 하면서 총 76명을 졸업시켰다. 졸업생들은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고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칭찬

받는 자들이 되어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는 졸업생이 되기 바란다”고 훈시했다.

1부 예배는 현영갑 목사 인도로 기도 임용수 목사, 찬양 뉴효포양상블, 설교 이재덕 목사, 결단의 기도, 봉헌찬송 조공자/김영환 이종창, 봉헌기도 안승백 목사, 광고 박차숙 전도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뉴욕교회회장 이재덕 목사는 “하

나님의 방법”(수8:1-7)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관문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의 장면이다. 전쟁은 군사력을 갖고 말하지만 금방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변변한 군사력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로수아를 따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했다. 전도대학교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의 나팔을 불 때 하버드대학보다 훌륭한 학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팔수로 십자가 보혈과 예수가 중심되는 학교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2부 졸업식은 이사장 김영환 목사 사회로 학교연혁 소개 김희복 목사, 찬송연주 조공자 전도사, 졸업자 소개 박차숙 전도사, 학장훈서 허윤준 목사, 졸업장 수여, 축사 오태환 전도협회 회장, 담사 강성삼 장로, 축도 김영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졸업생은 강성삼 장로, 김애자 권사, 유정봉 집사.

한편 오찬 후 재학생들은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전단지 배포를 위해 노방전도를 나섰다.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연합회 제 30차 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실버선교에 관심과 열정을!”

## 대뉴욕장로연합회 제 30차 기도회

대뉴욕장로연합회(회장 정권식 장로) 제 30차 기도회가 지난 6월 20일 오전 8시 뉴욕중부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열렸다.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도회는 김영호 장로의 사회로 대표기도 송정훈 장로, 찬양 장로중창단, 설교 김재열 목사, 특별기도

(△제 3차 다민족 선교대회를 위하여/민재기 장로 △할렐루야 대회를 축복하소서/정덕상 장로), 헌금기도 배상규 장로, 축도 김재열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재열 목사는 시편 71:18을 본문으로 “백발이 될 때에도”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장수시대에 사는 요즘, 연로하신 장로님들이 실버선교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실천할 때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신다”고 말했다.

이날 뉴욕중부교회서 제공한 조찬 후에 제3차 다민족선교대회 준비를 위해 준비위원장 이계훈 장로의 행사준비 진행 상황 보고가 있었다. 대회는 8월 23일(주) 오후 6시 후러스트제일교회에서 열린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5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잃어버린 법계를 찾아오라!”

##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마지막 준비기도회

할렐루야2015 대뉴욕복음화대회 1주일을 남긴 가운데, 제 5차 마지막 준비기도회가 지난 19일 열렸다.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린 기도회는 윤오성 목사(미국과 조국을 위하여), 지인식 목사(뉴욕동포사회의 복음화와 교계를 위하여), 김진화 목사(할렐루야 2015대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하여), 이대연 장로(할렐루야 2015대뉴욕복음화대회 진행을 위하여)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이윤성(위싱턴대학교), 임정은(스토니브룩대학교), 임예림(코넬대학교), 임은중(헌터칼리지), 정다솔(퀸즈칼리지), 자유리아(퀸즈칼리지), 최사룬(릿거스치대), 한지영(헌터칼리지)가 나다순.

예배는 이규섭 목사 인도로 경배

와찬양 김수경 목사, 기도 이성현 목사, 특주 유상열 목사, 설교 김중훈 목사, 광고 김희복 목사, 축도 이재덕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중훈 목사(뉴욕에일장로교회 담임)는 “주의 손이 함께 하는 성회”(행11:19-2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뉴욕의 최대집회인 할렐루야 대회의 가장 큰 관심을 얼마나 모이는 가이다. 그러나 과연 주님의 관심도 얼마나 많이 모이는 가일까?”라고 반문하면서 “그보다는 이 성회가 주님이 손이 함께 하시며 성회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주님이 함께 하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강조하고 “십자가

와 부활을 증거하는 ‘메시지’, 삼 속에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메시지’, 성령과 믿음이 동반된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김 목사는 “우리가 비워져야 성령이 채워진다”며,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는 집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부 준비행동과정은 문석호 목사가 그간의 준비기도회와 임원들의 풀타임 봉사, 감사준비 등이 완벽하게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회장 이재덕 목사는 “할렐루야대회의 주인은 여러분들이며 임원들은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며 회원교회들이 많이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는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담임)를 강사로 “잃어버린 법계를 찾아오라”(삼하6장)라는 주제로 6월 26일(금)부터 28일(주)까지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리며, 29일(월) 오전 10시부터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목회자세미나가 열린다.

한편 뉴욕교협은 대회참석자들을 위해 차량을 운행한다.

출발장소는 베이사이드 우리는 행 앞과 플라싱 금강산식당 주차장, 엘머스트병원 앞 체이스은행 주차장 등 3곳. 시간은 26일(금), 27일(토)은 오후 5시부터 20분 간격으로, 28일(주)은 오후 3시부터 2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유원정 기자)



뉴욕늘기쁜교회 설립15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마치고 임직자들과 참석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기쁘게 신앙생활하며 예수그리스도 참제자로”

## 뉴욕늘기쁜교회 설립15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뉴욕늘기쁜교회(담임 김홍석 목사)가 설립15주년을 맞아 지난 6월 21일 오후 5시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가졌다. 임직식을 통해 장로 3인(강영규, 김해수, 양철수), 안수집사 3인(김형봉, 이종식, 이혜준), 권사 1인(이미경) 등 7인이 임직했다.

김홍석 목사는 “뉴욕늘기쁜교회라는 교회 이름처럼 교인들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에 목회 방향성을 잡고 있다고 말한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5주년을 맞았다”고 말했다.

감사예배 및 임직식은 교회가 속한 ARPC 교단 목회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황동의 목사(뉴비전교회)가 기도를 했으며, 이용호 목사(ARP 동북부노회 임사부장)가

말씀을 전했다. 박영수 목사(아름다운제자들의교회)가 헌금기도를 했다.

이용호 목사는 출애굽기 35:30-36:1을 본문으로 “지명하여 부르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교회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교회와서 하나님을 안보고 다른 것을 보니 문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끝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교회에서 시작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다르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니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 오늘날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늘기쁜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 기뻐하는 성도님들과 임직받고 앞서 달려가는 일꾼들로 인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권면은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축사 송병기 목사(뉴욕목양장로교회), 담사 김해수 장로, 축가 조이플랜성중창단, 축도 허길 목사(뉴욕교회 연합회장단 회장)로 마쳤다.

P.I.O.N.E.E.R P.I.L.G.R.I.M T.O.U.R

##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대표전화 714-351-0124

안녕하세요!  
저희 성지전문 파이오니아 여행사에서는 금년 가을에 이스라엘과 소아시아를 아우르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흔적과 바울사도의 행적을 한꺼번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따로 두 번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가실 비용으로 성지 4개국을 다녀오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셜 코스**

**이스라엘과 소아시아를 아우르는 코스** **요르단/이스라엘/터키/그리스 13일** **\$3999 (9월말 마감)**  
10월 12일 출발 - 10월 24일 도착

---

**여행상품 · 일정**

<b>이스라엘, 요르단</b> (9박 10일) * 출발일: 2016년 2월	\$2,799
<b>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b> (10박 11일) * 출발일: 2016년 3월	\$2,899
<b>요르단, 이스라엘, 터키</b> (10박 11일) * 출발일: 2016년 4월	\$2,899
<b>터키, 그리스</b> (9박 10일) * 출발일: 2016년 4월	\$2,799

\* 유류할증료, 항공세 포함  
\* 비자비, 출.입국세는 별도  
\* 여행자 보험은 옵션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세요!  
**714-351-0124** 성지전문 15년의 경력  
출처 목사  
함께 하면 은혜스러운 순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 PIONEER PILGRIM TOUR

새로운 성지순례의 지평은 연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 주소: 17510 Pioneer Blvd, #210 Artesia, CA 90701  
\* E-mail: choigh1115@gmail.com, choigh1115@hanmail.net \* 파이오니아 사무실: FAX: (562)403-3363

#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사람”

## CEF 어린이 새생활 성경캠프

어린이전도협회 한인지회(CEF 대표 여병현 목사)가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간 선랜드의 랜초 이바라 크리스천 캠프장에서 “Imago Dei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어린이 새생활 성경캠프(New Life Bible Camp)’를 개최한다.

어린이 전문선교기관인 어린이전도협회는 매년 방학 때마다 성경 캠프를 주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어린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감사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목적을

두고 “Image Dei” 캠프가 진행된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라는 비전을 갖고 어린이들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캠프 주최 목적을 두고 있다.

어린이전도협회 한인지회 대표인 여병현 목사는 “35년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을 통한 구원의 확신과 기도와 말씀을 통한 영성발달, 나눔과 섬김과



어린이전도협회 한인지회는 어린이 새생활 성경캠프를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간 선랜드의 랜초 이바라 크리스천 캠프장에서 개최한다.



크리스천헤럴드 사옥이전 감사예배에서 양준호 발행인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사람을 참되게, 더 멀리 더 많이’

#### 크리스천헤럴드 사옥이전 감사예배 드려

‘사람을 참되게, 더 멀리 더 많이’ 기치로 문서선교의 사명을 갖고 1977년 창간, 38년의 역사를 지닌 크리스천헤럴드사(발행인 양준호 회장)가 더욱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TV 방송국(18.88) 개국을 앞두고 3700 Wishire(105호)로 이전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난 15일 오후 6시30분 본사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정대철 목사(방송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김종대 장로(OC장로협의회 회장) 기도, 민종기 목사(충현선교교회) 설교로 진행됐다.

민 목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마3:1-3)란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중의 왕이신 구세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때 요한은 그 왕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나팔수였다. 오늘 TV 방송개국을 위해 사옥을 이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크리스천헤럴드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나팔수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준호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부족하지만 이 TV사역이 이민사회에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힘들지만 주님의 능력과 보호와 사랑에 힘입어 최선을 다해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날 축사는 박희민 목사(미주성시화 대표회장)와 이종용목사(코너스톤교회 담임)가 전했다.

이어 정요한 목사(본사 미디어 사장은 참석자들과 직원들을 소개한 후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교 총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본사는 10월 1일 개국을 목표로 사전 시험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TV 방송을 이용 설교방송에 참여할 목회자 및 선교사님들의 관심을 바라고 있다.

(박준호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18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말하다가 마가교회 2층 소극장에서 열렸다.

### 크리스천투데이 창간18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 ‘말하다’ ...스티브황보, 김애설, 윤임상 등 출연

크리스천투데이(발행인 서중천 목사) 창간 18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말하다’가 18일 오후7시 마음이 가난한사람들의교회(담임 채동선 전도사) 2층 소극장에서 열렸다.

서중천 발행인의 인사말로 시작된 토크콘서트는 사회를 맡은 서인실 국장이 출연자들과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출연자인 스티브 황보의 원은 “어린 시절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사회 각 분야에 종사해야 함을 느끼게 됐다”며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캘리포니아는 골든스테이트라는 닉네임이 있다. 이는 아시아에 가까운 서부지역이 미국사회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더 활발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 말하며 “정치인들 중에는 자만심으로 정치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더 나은 커뮤니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두 번째 출연자인 김애설 극동방송 미주지사장은 “극동방송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청취자들에게 방송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좀더 깊은 신앙을 갖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왔다”며 “크리스천미디어는

양보와 교제를 통한 사회성과 리더십, 예수님을 위해 꿈꾸는 비전을 갖도록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캠프의 장점을 설명하며 어릴 때 신앙교육은 일생을 지배할 수 있기에 신앙교육의 기회는 많을수록 좋으며, 교회에서 여름 성경 학교나 캠프를 다녀온 자녀들에게도 적극 참석을 권하고 있다.

선착순 150명에 한해 신청 접수 중이며 참가비는 7월 6일까지 등록 시 190달러다.

어린이들을 믿고 보낼 수 있는 성경적이며 복음적인 어린이전도협회 캠프에 관한 내용은 www.cefkc.com이나 (213)382-1544 어린이전도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어린이전도협회)

## 서부교계 게시판



### 세시봉 율형주 장로의 노래와 음악이야기

세시봉 율형주 장로의 노래와 음악이야기가 26일(금)부터 28일(주)까지 개최된다. 일정은 26일(금) 오후 7시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 27일(토) 오후7시 남가주사랑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28일(주일) 오전 11시45분 ANC온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

▲문의: (626)720-2642박해영 목사, (714)772-7777이성진 목사, (818)834-7000 Ext.110전지능 목사

### GBN 복음방송 설립

뉴미디어 소셜 멀티미디어 방송기반의 GBN 복음방송이 설립됐다. GBN은 미주복음방송 뉴미디어 실장을 역임한 여운영 목사가 대표를 맡았으며 소셜 멀티미디어 디지털 방송을 통해 실시간 양방향 소통방송과 디지털 큐레이션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시험방송 중이며 아이핀과 안드로이드앱(gbn 복음방송) 등으로 24시간 생중계 가능하다.

▲문의: (213)700-5425

### 전도사 청빙

연합교회(담임 오경환 목사)는 파트타임 유스 전도사와 초등부 전도사를 청빙한다. 지원조건은 신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취업에 걸림사유가 없어야 함)이며 유스 전도사는 중고등부 사역 유경험자로 2세 신앙교육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진 자, 초등부(1-6학년) 전도사는 초등부 사역경험자로 어린이들을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풀어줄 수 있는 자.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학교 졸업 혹은 재학증명서, 추천서(담임목사 혹은 교역자 추천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 (909)622-8815

### 갈보리믿음교회 부흥회

갈보리믿음교회(담임 강진웅 목사 3300 Wilshire Blvd. #303 LA)는 ‘청년의 신앙,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제로 부흥회를 26일(금)부터 28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김형국 목사(나들목 교회 담임).

▲문의: (213) 365-8880

### OC 기독교 평신도연합회 체육대회 및 사생대회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회장 유우경 집사) 체육대회 및 사생대회가 27일(토) 오전 8시 팰리크리스천하이스쿨(10818 Artesia Blvd, Cerritos)에서 개최한다. 종목은 족구(청장년), 달리기(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줄다리기(여성 및 청소년)이며 사생대회는 유년부터 초등학생까지다.

▲문의: (714)417-1528정준동 대회준비위원장

### 투게터 청년연합집회

투게터 청년연합집회가 27일(토) 오후 6시 달라스영락장로교회(담임 명치호 목사 850 Lexington Dr, Plano, TX)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명치호 목사.

▲문의: (972)424-5400

### 이지선 자매 초청 간증타임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이지선 자매 초청 간증타임을 28일(주) 오후 3시 호프센터에서 갖는다.

▲문의: (213)749-4500

## LA연합교회 김학진 목사 찬양간증집회

복음성가 가수 김학진 목사 찬양 간증집회가 21일 오전 11시 LA연합교회(담임 고귀남 목사)에서 열렸다.

LA연합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고귀남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집회는 김학진 목사(한국 복음성가협회 부회장 및 삼일총무)가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간증과 찬양으

로 집회를 진행했다.

김 목사는 “어린 시절 불량배로 살았었다. 온몸에 칼자국이 있을 정도로 험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교회 나오라고 한 목사님의 권면이 내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산 기도원에서 은혜체험을 한 후 예수를 믿는 것은 나 자신이 죽는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주님만 내편이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날 김 목사는 ‘낙엽처럼 살아온’, ‘전능자의 손’,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부르짖으라’를 불렀다.

(박준호 기자)



복음성가 가수 김학진 목사 찬양간증집회가 LA연합교회에서 열렸다



KOWIN주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차세대 리더 양성 컨퍼런스에서 영감 거주하원의원이 강연을 하고있다

### ‘꿈을 가져라’ ...주류사회 진출 목적

#### KOWIN 차세대리더 양성 컨퍼런스

세계 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회장 권유나)가 주최한 차세대 리더 양성 컨퍼런스가 20일 오후 4시30분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꿈을 가져라’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컨퍼런스는 권유나 회장이 개최선언과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참석자들과 ‘꿈을 가져라’라는 구호를 함께 불렀다. 이어 열린 컨퍼런스는 영감 거주 65지구 하원의원, 한인 최초 LA카운티 선출직 판사 도전

(박준호 기자)

# 하나님의 구원계획

## GPS CENTER 센터

저자: 라희재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P.O.Box 610178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무슬림선교, 한글교육·문화 접촉 시도하라 합신 이슬람선교세미나, 공개적 폄하 땀 오히려 마음 단아

국내에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무슬림이 늘어나면서 선교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교 전문가들은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이주민 선교의 관점에서 이들에게 다가가라고 주문했다. 이주민 선교란 국내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 노동력으로 볼 게 아니라 구원할 영혼으로 보고, 그들이 본국에 돌아가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돕자는 의미다. 이와 같은 의견은 16일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새교전교회(이재현 목사)에서 열린 합신세계선교회 이슬람선교 세미나에서 제시됐다.

이날 말제를 맡은 김성수 전 방글라데시 선교사는 “이주민 선교의 관점으로 한글교육이나 문화·직업 현장에서의 접촉 등을 적극 시도하자”

고 제안했다. 김 선교사는 무슬림과의 접촉에서 주의할 점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슬람을 폄하하거나 무함마드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 문을 닫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 없이는 결코 마음을 열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선교사는 “이슬람을 적대시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독교의 구원관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을 설명하고 기독교는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임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잘못된 선입관으로 무슬림과 담을 쌓고 지내면 주님의 지상명령의 수행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슬람

역시 포교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슬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교회나 모임에서 이슬람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정례화할 것, 이슬람 연구회를 설치할 것, 일대일 성경공부를 시도할 것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동의 A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소개됐다. 김요한 선교사는 “지금 중동에서는 이슬람 선교가 요원한 숙제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며 “A국은 과거와 달리 지속적인 교회 성장과 현지인에 의한 선교가 활발하다”고 말했다. 김 선교사는 “제자훈련과 캠퍼스 전도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팍팍했던 120명이 300년 만에 로마제국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뜨겁게 지속된다”고 덧붙였다.

깊은 해”라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귀환한 것을 보면 숫자 70에는 해방의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완전한 해방은 남북이 평화통일을 이룬 때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장로교회가 하나가 되면 통일의 그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장총은 ‘장로교의 날’ 사전행사로 다음달 2일과 3일, 6일과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스타포호텔서울에서 ‘통일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 뒤 발제된 내용을 책으로 출판한다. 다음달 7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엠베서더서울에서 ‘교회 재정 학술심포지엄’도 갖는다.

한장총은 1981년 예정통합·합동·고신·대신, 한국기독교교장로회 등 5개 교단으로 시작했으며 현재 24개 교단, 3만7000여 교회가 소속돼 있다.

부 비전선포식 순서로 진행된다.

장로교 전통예배에선 안성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개혁 총회장의 사화로 이종윤 한장총 전 대표회장이 메시지를 전한다. 성찬식은 권태진 한장총 전 대표회장의 집례로 진행되며, 정영택 예정통합 총회장이 축도한다. 폐회식에서는 광복 70주년 비전선언문을 낭독하며 ‘한교단 다체제’ 실현을 위해 뜻을 모은다.

‘장로교의 날’ 광복70주년사업단 장 오치용 목사는 “비전선언문에는 장로교 분열을 회개하고 각 교단 총회는 유지하되 연합사역은 함께 하는 ‘한교단 다체제’ 시대를 거쳐 궁극적으로 하나의 교단으로 통합한다는 장로교 성도들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황수원 대표회장은 초대의 글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 한장총, 7월 10일 ‘장로교의 날’

국내 최대 교파최대 성도, 장로교단 축제 올해로 7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황수원 목사)는 다음달 1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2015 장로교의 날’ 행사를 연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장로교의 날’ 행사는 국내 최대 교파와 최대 성도를 보유하고 있는 장로교의 연합과 일치를 다짐하고 시대적 사명을 되새기는 자리다.

한장총은 17일 “장로교의 날” 행사는 장로교인들만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행사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의 발판이 되는 뜻깊은 대회에 한국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후 3시부터 교단 기수단 입장으로 시작하는 ‘장로교의 날’ 행사는 1부 개회식, 2부 장로교 전통예배, 3

## ‘개신교 첫 공식주일에배’ 130년 만에 재연

남대문교회, 알렌 선교사 일기 속 그 예배처럼…

“우리는 오늘 오후 8시 우리의 첫 일요일예배를 보았다. 첫 일요일예배에는 해룬 박사 부부, 의사 스크랜턴의 어머니, 나와 그리고 내 아내 등이 참석했다.”(알렌의 일기 중에서).

미국의 의료 선교사인 호러스 알렌(1858-1932)이 1885년 6월 21일 자 자필 일기에서 묘사한 예배가 21일 서울 남대문교회(손윤탁 목사)에서 130년 만에 재연됐다. 남대문교회는 알렌 선교사가 설립한 제중원의 신앙공동체를 모태로 한 교회다.

이날 진행된 ‘첫 공식주일에배 130주년 기념행사’에는 알렌 선교사의 묘교회인 미국 오키오이 벨라웨어제일장로교회의 데보라 패터슨 목사와 성도 6명도 참석해 한반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신앙 선조들의 발자취를 확인했다.

손윤탁 목사는 “130년 전 단 한 곳에서 드러졌던 예배가 오늘날 약 6만여 곳에서 드러지는 주일 예배로 열매를 맺게 됐다”며 감격을 전했다.

설교는 정영택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이 맡았다. 정 총회장은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한국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나의 교회’라고 착각하는 시대적 현실을 맞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분열로 인한 상처를 딛고 그 옛날 제중원 신앙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남대문교회가 좋은 모자라가 돼 주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패터슨 목사는 축하인사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130년 전 마음속에 복음을 품은 한 사람이 뿌리내린 하

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게 꽃피었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환영을 마음에 품고 오래도록 간직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 복음의 열매를 마음에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정남식 연세대학교의료원 원장, 마크 내과 주한 미국부대사도 축하와 격려를 전하며 알렌 선교사의 숭고한 선교 정신을 되새겼다.

이날 예배에선 윌리엄 스크랜턴(1856-1922) 선교사가 설립한 상동감리교회(서철 목사) 성도들도 축하 인사를 전해 교단을 초월한 선교 역사를 기념하는 현장에 의미를 더했다.

남대문교회 초청으로 지난 16일 내한한 패터슨 목사 등 7명의 방문단은 19일과 20일 각각 열린 첫 공식주일에배 기념 음악회와 기념 역사포럼에도 참여했으며 22일 출국할 예정이다.

의교회(오정현 목사)는 20일 새벽 예배 때 라오스와 아이보리코스트, 과테말라 등 3개국에 현지 부족어 성경 1만6584부를 기증했다. 사랑의교회는 2013년 11월 쉐월드디아코니아를 통해 필리핀에 세부어 성경 4300부를 후원했다.

## “불안한 환자들·지친 의료진 결 지켜야죠”

메르스 최전선의 목회자, 원목들은 지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시54:4) 사랑하는 한가족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두려움과 과로로 힘든 분들은 전화로 상담·기도해 드립니다.”

삼성서울병원 원목실 김정숙(여) 원목은 18일 새벽 병원 신우회인 ‘한가족의료봉사회’ 회원들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전날까지만 해도 중증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진들과 기도회를 가졌다. 하지만 메르스 확산 예방 조치로 병원의 단체 모임까지 어려워지면서 전화를 통한 기도요청과 기도제목 나눔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메르스 환자 치료와 확산 저지를 위한 활동이 집중된 가운데 ‘메르스 최전방’에 있는 목회자들을 꼽는다

## 법원, 경찰의 쿼어행진 금지통고처분에 제동 교계 “반나체 행진 허용 동성에 확산될 것 우려”

법원이 동성에 단체들의 ‘쿼어문 화축제’ 거리행진을 금지한 경찰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동성애 단체들은 오는 28일 서울광장에서 시작해 청계광장을 거쳐 삼일교에 이르는 구간에서 퍼레이드를 가질 수 있게 됐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반윤리적인 동성에 문화를 확산시키고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방정우)는 쿼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쿼어 퍼레이드 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조직위가 신고한 집회와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집회가 있고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

지했다”면서 “그러나 조직위가 가장 먼저 집회를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질서유지인 100명 배치를 약속한 만큼 심각한 교통 불편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기에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여론영 교육국장은 “지나해 쿼어 퍼레이드가 반(반)나체 광란의 장이었다 것을 경험하고도 법원이 처분이든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 국장은 “한기총은 쿼어 퍼레이드 차량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도록 강력 저지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법당국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국교회연합 김훈 기획홍보실장도 “법원 결정은 대다수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외면한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경찰 공권력이 저지하지 못하면 시민이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본부장 소강석 목사는 “인

## “동성에 확산 저지 모든 교회 동참을”

예정합동백석, 긴급 메시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과 백석(총회장 장중현 목사)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서울광장 쿼어 퍼레이드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백남선 예정합동 총회장은 18일 차별금지법안과 쿼어 퍼레이드에 반대하는 기도회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교단 산하 전국 1만1500여 교회에 보냈다.

백 총회장은 메시지에서 “오는 28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되는 쿼어 퍼레이드에 반대하는 기도회를 당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부근의 대한문 앞에서 진행한다”면서 “교회와 나

라의 운명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동성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와 우리 사회가 엄청난 재난을 겪게 된다”면서 “전국 교회가 예배 때마다 3분 이상 통성으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정백석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동성에 확산 저지 활동에 적극 동참키로 뜻을 모았다. 예정백석은 성명에서 동성애 단체들을 향해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인권탄압으로 몰아가지만, 그 내면에는 동성애 확산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면서 “군인 사이의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균형법 조항 개정 운동

권이란 한 나라의 국민적 가치와 정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우리나라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소수의 욕망이 인권이란 명분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다”며 “사법부에서 이를 감안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중증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공포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퍼레이드가 관중은지 침묵”이라며 “중진 퍼레이드에선 팬티 바람으로, 중요 부분만 가리고 행진했는데, 지금 그런 것을 할 때가 아니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의 다른 관계자는 “대규모 행진이나 집회, 복수의 집회 신고 등에 대해선 경찰이 금지 통보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면 판사 성향에 따라 집회 개최가 허용되기도 하는데, 이번처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경우 어떻게 막아야 할지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까지 펼치면서 동성애를 확산시키려는 계획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과 창조질서에 위배될 뿐 아니라 사회질서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를 문화적 타락으로 이끄는 죄악된 길”이라고 경고했다.

동성애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국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미화하고 정당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예정백석은 이날 마지막 주일인 28일 교단 산하 5300여 교회에서 일제히 ‘동성에 반대 주일’을 지키기로 했다. 이날 예배에선 공동설교문으로 동성애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고 동성애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할 계획이다.

##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긴급 대담’

“동성에 합법화 되는 곳마다 교회, 훼손되고 몰락”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본부장 소강석 목사)는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에서 동성애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긴급 대담을 갖고 동성애의 문제점과 확산 방지방안 등을 논의했다.

첫 발제에 나선 김지연 성과학 연구협회 대외부과장은 “우리나라 교과서는 그동안 동성애가 에이즈 전파의 주된 경로이며 동성애자와의 성관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꾸준히 계몽해 왔다”면서 “그러나 1999년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요구 이후 이 중요한 사실관계가 교과서에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이즈학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내국인 에이즈 감염자의 연평균 증가는 15-19세 20.6%, 20-24세 14.9%로 조사됐다”며 10대와 20대의 에이즈 감염 증가추세에 대해 우려했다.

염안석 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은 ‘에이즈의 이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기독교가 동성애를 혐오한다는 비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사명감을 가

지고 동성애자들이 버린 동성애 에이즈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애의 폐해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병원도 동성애 에이즈환자들에 대해 임원 거부나 차별 없이 진료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는 동성애 에이즈환자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희(법무법인 산지) 미국 변호사는 “동성애자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행동이 용인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권리’이지 ‘동성애자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권이란 이름으로 동성애자의 권리를 주장할 때 인권이라는 용어는 타락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요구하는 인권은 ‘특권’으로 변질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곳마다 교회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몰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이제 한국의 동

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은 성결한 선진 국가를 이루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윤리선진국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책위는 동성애 단체의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오는 28일을 ‘동성애 반대 주일’로 지키기로 했다. 이날 예배에선 공동설교문으로 동성애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고 동성애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할 계획이다. 또 이날 오후 3-7시에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동성애 조장 중단 촉구 한국교회교단 연합 국민대회’를 갖는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양병희 대표회장은 긴급 대담 회견을 통해 “동성애는 우리 사회의 전통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성경적 가르침과 교훈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이루기 원하는 시민 등이 모두 함께 동성애 조장 반대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황수원 목사),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윤재 목사),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 대한성서공회 120주년…신임 이사장 이정익 목사

“해외 성서보급 지원, 연간 300만 달러로 확대”

대한성서공회 신임 이사장 이정익(신촌성결교회) 목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대한성서공회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성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성서공회연합회와 미자립성서공회에 대한 지원을 2020년까지 연간 300만 달러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성서공회는 지난해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후원 및 미자립성서공회 성서기증 사업에 171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 목사는 “대한성서공회가 6년 전 문을 닫을 위기였던 에카도르성서공회를 도왔는데, 이 성서공회가 쿠바에 성경 2만여권을 지원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는 한국교회가 기도와 헌금으로 지원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서 “대한성서공회의 해외 성서 보급 지원사업에 한국교회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대한성서공회가 120주년을 맞은 올해 이사장에 취임하게 돼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그동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성서를 보급해 오던 전통을 계승해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1895년 ‘대영성서공회(영국성서공회) 한국지부’로 시작한 대한성서공회는 영국성서공회와 미국성서공회, 스코틀랜드성서공회의 도움을 받아 성서를 보급해왔다. 1979년 재정적으로 자립한 이후 크게 성장했으며 최근 1년간 국내에 55만여부, 해외 120여개국에 성서 690만여부(240여 연어)를 제작해 보급했다.

이 목사는 “올해 대한성서공회 120주년을 기념해 11월 24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송기성 목사)에서 120주년 기념 예배와 학술심포지엄을 열 것”이라며 “이 심포지엄에서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대한성서공회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성서 보급 사업의 과제와 비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대한성서공회가 전 세계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장한 것은 성서공회의 주인인 한국교회의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대한성서공회 이사회에서 임기 1년의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한편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사랑

면서 “이별 때일수록 의료진들에게 위로와 격려로 힘을 북돋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한국교회의 기도를 당부했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서울신촌세브란스병원은 이날부터 예배와 기도회를 금지했다. 최형철 원목은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나 주보·전도지를 돌리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병원 측에서 양해를 구했다”며 “호흡기 질환 환자나 특병구역·중증 환자를 제외한 심방과 수술대기 환자를 위한 기도는 마스크를 쓰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9년부터 병원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최 원목은 이번처럼 병원 사역이 위축된 적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와 달리 치사율이 높고 특정 병원이 뿔리다 보니 병원 사역 뿐 아니라 의료인과 직원들까지 상당히 위축된 것 같다”면서 “어떤 일이 있든지 환자를 돌보는 일이 병원의 사명이기에 원목실도 수술실 내

의약품 전달 등 지원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반 병원 원목실도 세심한 주의 속에 사역을 병행하고 있다. 서울적십자병원 김기정 원목은 “병실 위로 문병이나 단체 활동 등은 가급적 자제하면서 위생 조치도 철저히 따르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화나 카카오톡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해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기도와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교회는 병원 건물과 떨어져 있어 순세정제를 비치하고 기준처럼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노정현 원목은 “지원 기도회에서 나라와 민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기도한다”며 “한국사회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선교의 창 (34)

## 라마단을 대하는 크리스찬의 자세



송종록 목사 | (대학선교, 수필가)

아브라함의 고향인 중동에 평화는 언제나 오려나? 뜨거운 땀 빛, 모래사막 그곳에 오늘도 피의 살육이 계속되고 있다. 끝없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여자들은 성 노예로 포로가 되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난민들

위 등이 모두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폭력, 화, 시기, 탐욕, 중상, 음행 등 반종교적인 행위를 삼가 한다. 라마단의 주된 목적은 교도들에게 인내와 자제력을 가르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며 알라 신에 대한 복종을 나타내게 하는 신앙행

교는 대체적으로 제정일치를 추구한다. 종교가 국가이고 문화이며 관습이다. 따라서 현재적 사람은 물론이고 여기서 태어난 후세대들이 체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생래적으로 이슬람문화에 체질화된 인간은 그 사상에 대한 객관적

의 대상이나 사람은 포용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존엄한 자로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고 압제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상처난 부위는 건들면 더 커진다.

약을 바르고 붕대로 감싸야 회복이 된다.

무슬림에 대한 근본 대책은 주의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다.

이 지중해권을 떠돌고 있다. 하늘에서는 언제 무인폭격기가 폭탄을 떨어뜨릴지 모른다. 사람들은 IS로 말미암아 공포감에 사로 잡혀 있다. 이런 비극적인 현실 가운데 금년에는 이슬람교도들의 라마단이 시작되었다. 올해는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다. 세계 14-17억의 무슬림들이 해가 있는 동안 금식하며 일상생활을 한다. 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현상은 원인이 있다. 이슬람의 출현과 오늘의 중동사태는 결코 우연히 아니다. 이는 기독교와 깊은 관계성이 있다. 특히 십자군전쟁 때부터 기독교 배경인 서방은 힘으로 밀어붙여왔다. 하지만 문제는 더 깊고 확대되어 왔을 뿐이다. 저 땅에 과연 살림이 보이는가? 이 라마단 기간에 우리 기독교인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해야 한다.

**“크리스찬이여, 6월 18일 - 7월 17일 기도로 일어나라”**  
무슬림 영적 사마를 사랑으로

라마단, 무슬림 영적사마를 위한 30일 기도

이슬람교 신도들이 기도하며 중동으로 돌입했다. 영적사마를 할 때도 있다. 선교지에 계시는 신도들의 라마단에 관계된 기도제목과 나라별 (나라별 기도)를 보내주세요!

sonministry@gmail.com

라마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영적사마를 위한 30일 기도 (6월 18일 - 7월 17일)

- 17억 무슬림들이 오봉년 시작되는 라마단과 이슬람교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이슬람교의 신학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관점에서 이슬람교의 신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라마단 기간에 오봉년 시작되는 라마단과 이슬람교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라마단 기간에 오봉년 시작되는 라마단과 이슬람교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세계 이슬람 연례기구 47개국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주관: 남가주선교단체협의회, 불빛을 기도회, GMAN 선교전문 인터넷방송 www.gmanradio.com

### 라마단의 의미와 목적

라마단(Ramadan)이란 아랍어로 '~을 이끌어내다', '유도하다'라는 의미로, 'ramida', 'ar-ramad'에서 파생되었다. 이는 이슬람 달력으로 아홉 번째의 달을 가리키며 타는 듯 더위와 건조함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 라마단 기간은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Mahomet)가 천사 가브리엘(Gabriel)로부터 코란을 계시 받은 신성한 달로 여겨 금식을 강요한다. 라마단의 금식은 푸아사(PUASA)라고 하며 모든 무슬림이 따르는 5대 의무 중 하나이다. 이는 30일 동안 해가 뜬 후부터 질 때까지 그들에게 음식, 음료, 흡연, 성행

위이다. 저들은 이렇게 금식을 하면 하늘의 상급이 증가하고 알라로부터 복의 복을 받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

라마단을 지키는 무슬림의 실상 지구촌의 1/5에 해당하는 인구가 이 뜨거운 여름에 열사의 땅과 세계 도처에서 금식을 하고 있다. 인간이 하루 만의 금식도 쉽지 않은데 저들은 한 달간이나 낮에 금식하며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양태 하에서는 인간이 비인간화되기 쉽다. 예민하며 독해질 수밖에 없다. 사막의 전갈이나 방울뱀이 다 그런 이치이다. 이슬람

판단자체를 거부하며 결과적으로 맹종하게 된다. 라마단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과연 그들 중 라마단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는 얼마나 될까? 사회의 분위기나 후한 이 두려워 행세하는 자는 없을까? 아무튼 같은 하늘 아래 행복을 누리며 자유롭게 살아야 할 인간이 종교라는 굴레에 묶이어 신음하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다.

라마단 시기에 크리스찬의 생활 이슬람교와 라마단. 이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그 교리는 타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로 이슬람교와 라마단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일이다. 손자병법(孫子兵法)에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란 말이 있다. 상대를 알아야 적절히 대처할 수 있지 않는가? 둘째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일이다. 이는 힘이나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신(성령)으로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믿는다. 셋째로 주변의 무슬림들을 경계의 눈조리보다 주의 사랑으로 살피며 섬기는 일이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키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요, 후자는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큰 부담이요 미전도 종족인 저들을 포용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저들처럼 매일 금식하며 5번씩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루 한번 정도는 기도할 수 있다. 이 사역을 위해 아래 포스터가 제작되었다. 여기에 57개 이슬람권 국가와 수도 그리고 국가가 나열되어 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매일 구체적인 기도제목이 나타난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적으로 이 나라들을 번갈아가며 기도할 힘을 모으시면 좋겠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맺는 말  
우리 크리스찬이 일 년 중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때가 2번 있다. 바로 사순절기와 라마단 기간이다. 전자는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함이고, 후자는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큰 부담이요 미전도 종족인 저들을 포용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저들처럼 매일 금식하며 5번씩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루 한번 정도는 기도할 수 있다. 이 사역을 위해 아래 포스터가 제작되었다. 여기에 57개 이슬람권 국가와 수도 그리고 국가가 나열되어 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매일 구체적인 기도제목이 나타난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적으로 이 나라들을 번갈아가며 기도할 힘을 모으시면 좋겠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메일: jrson007@hanmail.net



### 헝가리

#### 선교의 놀라운 샘플 턴(Sample Turn)

샘플 턴(Sample Turn)이란 화성 주위를 도는 위성에서 표본을 보내면 그것을 통해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나누려는(turn) 얘기(sample)가 화성(선교지 헝가리)에서 보낸 것쯤 될까요?^^  
"내 엄마가 되어줄 수 있어요?" 집시 어린이 캠프를 2박3일하는 동안 1초도 눈을 떼 수 없었던데, 잠재할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1차 캠프로, 고작 6명을 데리고 저희 부부가 그들의 '아빠 엄마 되어주기'로 한 것인데...  
침대 위에서 장난치며 좀처럼 쉽게 잠들지 못하던 여자애들의 질문입니다. 남자애들은 흥부선교사가 열방에서 재우고 있었지요. 저는 빨리 애들을 재우고 애들이 벗어놓은 옷을 세탁해야 하



는데 종이 쭉셨습니다. "안돼! 그러나, 너희들이 나중에 나같은 엄마가 되길 바래."  
그들의 아빠는 세 부류입니다. 돌아가셨거나, 헤어졌거나, 감옥에 있습니다. 엄마들은 자신도 어렸던 사춘기에 애를 낳기 시작하여,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헌신적인 부모, 건강할 음식, 깨끗한 환경, 행복한 놀이와 즐거운 공부... 체험하기 캠프의 목표입니다.  
저희 9인승 밴에 태워 다닐 수 있고, 한 가족의 느낌을 갖도록 소수의 어린이를 2차, 3차 캠프 할 것입니다. 애들이 너도나도 아빠한테, 아니 흥부선교사에게 목마를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헝가리의 갈릴리 바다같은 발라톤 호수에서 해염을 치다가도 달려와 저희 품에 안기네요. "야호! 모든 것이 처음이야, 캠프도, 발라톤 호수도, 해피 밀 메뉴와 그 속의 장난감도...!"  
"휴! 여보! 우리가 아직 오십대 인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명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올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살전2:4).  
헝가리의 구호기관, "사랑의 섬김"의 책임자는 샌치 산도르 목사입니다. 그는 7년간 노숙자 생활을 했는데, 그것은 14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가출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군에 입대하여 전화 장난을 하다가 성경을 읽으라는 상대방의 권유로, 정말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지구 곳곳에서 재난이 생기면 달려가고, 북한에도 약품, 의료기 등을 원조합니다.  
저희 십년지기 친구, 임례 전도사도 전에 십 년간 노숙자였습니다. 그 후 헝가리 오순절 신학교에서 공부하였고, 졸업 후 사역자가 되었어요. 더구나 올 초에 검안과 여의사인 일디코와 결혼하여 부부가 저희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배 때도 임례는 간증을, 일디코는 기타연주를 하며 특송을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노숙자 같으셨습니다. "여유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없으니, 인자는 머리 돌 곳이 없다"(마8:20)고 하셨으니까요. 저희 선교의 샘플은 예수님입니다.  
어느 날 화성에서 "놀라운 샘플 턴(Sample Turn)"이 도착하였습니다. 아! 여섯 명의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네요. 야초, 제니퍼, 자스민, 버나사, 제시카, 르카르도!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흥근&서명희 나눔 홈페이지:http://hungary.cafe24.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p><b>갈보리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후 7:30 (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b>덴버에담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세환</p> <p>영양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p> <p>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www.kopscschurch.org</p>	<p><b>몽고메리교회</b></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b>벅스카운티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종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www.1946s.com</p>	<p><b>벤델교회</b></p> <p>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부흥예배(한):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b>보스턴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전덕영</p> <p>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1:00 유지, 유년노부: 오전 10:00</p> <p>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ingham, MA 01948</p>	<p><b>샬롯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나성균</p> <p>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p> <p>Tel: (704)529-0900 / 0998(팩스겸용)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b>새시온침례교회</b></p> <p>담임목사: 정용교</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p> <p>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p>	<p><b>시애틀평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박은일</p> <p>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opscschurch.org</p>	<p><b>안디옥교회</b></p> <p>담임목사: 강준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702)749-9929, Fax: (702)478-3825 3825 Melody Ln., Las Vegas, NV 89108 www.omychurch.org</p>	<p><b>알칸사 제자교회</b></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1946s.com</p>	<p><b>앵커리지델린문교회</b></p> <p>담임목사: 유제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b>엘파스델린문교회</b></p> <p>담임목사: 하태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b>영생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이용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ter Rd., Horsham, PA 19044</p>
<p><b>킬린온누리교회</b></p> <p>담임목사: 김성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저녁예배: 오후 8:00</p> <p>Tel: (254)634-8705(H), (254)531-1842(C) 1000 E. Valetaran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www.mpcow.org</p>	<p><b>주예수교회</b></p> <p>담임목사: 배현찬</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25 www.1946s.com</p>	<p><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박창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nacrc.com</p>	<p><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p> <p>담임목사: 조진모</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친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p>	<p><b>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선만</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p> <p>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 “크리스천을 위한 역라마단 기도 안내서” (2)

열한번째 날: 국내 무슬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요한 6:39,40)

사랑하는 주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우리 곁에 있는 12만8천명의 외국인 무슬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주소서. 국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와 단체들에게 인내와 지혜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소서! 돕는 손길들을 보내시고, 한국교회가 더 관심과 기도로 동역하게 하소서!

열두 번째 날: 무슬림들이 지하드를 멈추게 하소서!(요10:10)

사랑하는 주님! 무슬림들이 타 종교인들에 대한 지하드를 그치게 하소서.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일생을 도둑질 당하고, 남도 죽이고 스스로도 죽이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영혼들을 구하시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싸우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소서.

열세 번째 날: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이 화해하게 하소서(고후 5:18,19)

사랑하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슬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인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무슬림들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가 힘써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소서!

열네 번째 날: 무슬림들과 유대인들이 화해하게 하소서!(엡 2:14)

살아계신 하나님! 친히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화평이시며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슬림들과 유대인 사이에 뿌리 깊은 증오와 분노로 막혀있는 담이 헐리게 하소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테러와 거짓의 세력이 무너지고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열다섯 번째 날: 이슬람권에서 여성 인권이 존중되고 가정 폭력이 근절되게 하소서!(창1:31)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남자와 여자를 보며 심히 기뻐하시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슬림들

이 남성도 여성도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한 것과, 하나님의 기쁨



을 위해 태어난 것을 알게 하여주소서! 이슬람권에서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고, 가정 폭력이 근절될

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천보다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무슬림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게 하셔서 무고한 더 이상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일이 없게 하소서.

열일곱 번째 날: 이슬람권에서 명예살인이 사라지게 하소서!(사 9:2)

사랑하는 하나님! 명예살인을 통해서 그 땅의 백성들을 덮고 있는 철혈 같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을 쫓아내소서. 이슬람권에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예수그리스도도 비취게 하소서. 명예살인의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이 속히 떠나가게 하소서!

열여섯 번째 날: 무슬림들이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하소서!(마

16:26, 창1:17)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값주고 사신 만큼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것

### “가장 세속적 도시 뉴욕, 복음으로 변화시킨다”

(2면에서 계속) 물론, 그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는 하다. 하지만 또 다른 극단인 율법주의와 도덕주의, 바리새주의도 문제가. 2008년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한 남자가 후보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모두 담겨 있지 않을까요. 각 후보자에게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사실로 믿으십니까?”

이 사람의 관점은 잘못됐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사실로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예수님뿐 아니라 바리새인도 그 말에는 동의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사실로 믿는 사람이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얼마든지 잃어버린 사람일 수 있다. 삶을 변화시키는 역동성을 잃어버린 교회도 그 신학이 이쪽이나 저쪽으로 치우쳐 버린다. 율법적 도덕주의, 자유주의, 포용주의, 성경에 대한 불신, 부도덕, 상대주의 등.

성경적 복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은 “만사에 중용”을 지향한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일에도 중도를 취하지 않았다. 그분은 철저하게 온유하면서도, 철저하게 진리를 주장하셨다. 복음은 결코 온건하거나 따뜻한 미지근하지 않다. 복음은 율법주의도 아니요, 자유주의도 아니다. 성경적 복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운동은 결코 도시를 품을 수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운동의 핵심에는 상황화 된 복음이 자리하고 있다. 상황화는 신학보다는 오히려 문화와 더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최근에 어느 젊은 그리스도인 여성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몇 해 전에 다른 나라에서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이민 온 이 여성은 아주 훌륭한 민중교회(이탈리아 한인교회) 같은에서 신앙 생활을 했다. 그런데 그녀는 결국 그 교회에 실망하게 됐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그 교회는 뉴욕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것보다 자기들만의 문화를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출신지가 같은 사람들만 그 교회에서 신앙을 갖게 되곤 했죠.”

그곳 교인들은 자신들이 뉴욕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적응하고 뉴욕 시민들과 동화되기를 거부했다. 그 교회의 문화는 너무나 편협해서, 이제 막 비행기나 배에서 내린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게 되기가 쉽지 않았다.

적응에 실패한 교회, 상황화에 실패한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다.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이 되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물론 지나친 적응도 문제이긴 하다. 뉴욕 시의 문화에 너무 많이 적응하면 세속화와 죄, 탐욕과 우상숭배에도 적응하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까? 주변 문화에 어느 정도 적응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귀를 기울이게 하면서도, 문화에 항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 이 지점에서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상황화 된 성경적 복음 신학이다. 이것이 첫 번째 차원이다.

### 십자말 • Cross Word (86)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31x31 crossword puzzle grid with numbers 1-31.

#### <가로 푸는 열쇠>

- 1.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남편(마1:18).
2.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첩(창22:24).
5. 붉은 실(창38:28).
7. 담나에 가던 길에 유다가 실수하여 자기 며느리 다말의 정조를 범한 곳이다(창38:14).
9.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사람(골2:17).
10. 일정한 계율을 지키기 위하여, 또는 어떤 결심을 보이기 위하여 음식을 먹지 않음(사20:26).
12. 낙타를 끌고 떼지어 다니며 장사하는 무리(사21:13).
14. 물매로 때리는 사람(왕하3:25).
17. 때를 지어 재물을 약탈하는 행동(마7:15).
19. 여름철에 갑자기 퍼붓는 큰 비(요24:8).
21. 괴로움과 어려움. 고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 당하셨다(애3:19).
23. 도로포장, 방부, 방부 등의 재료로 쓰임(출2:3).
24. 먹을 수 있는 풀이나 나뭇잎의 총칭(민9:11).
25. 돌이 뜨는 시간 때(창44:3).
27. 맛난 음식을 만들(삼상8:13).
30. 가버나움 근처,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요1:44).
31. 하나님의 덕을 찬송하며 부르는 노래(스3:11).

#### <세로 푸는 열쇠>

- 1. 고라 사람이다(대상12:6).
2. 유대왕 히스기야의 국고를 맡고 궁을 차지한 장관인데 이방인이다(사22:15).
4. 어리석고 둔함(시19:7).
5.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육지같이 건넌 바다(행7:36).
6. 다니엘이 어둠을 여겼다고 들어갔던 무서운 곳(단6:7).
8. 군주국에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원수(담전2:2).
9. 늘 일삼(살전5:16).
11. 먹는 것의 일종(욘8:16).
12. 중전이 낳은 왕자(단12:1).
13. 남을 해하려고 쓰는 피(잠22:20).
15. 곡식을 갈아서 가루를 만드는 데 쓰이는 기구(출11:5).
16. 율법학자이며 바울의 친구이다(딤후3:13).
17. 소나무과목의 상록나무(나2:3).
18. 병고(사53:3).
19. 남에게 무슨 일을 청함(애6:9).
20. 유대 땅지에 있는 한 고을(수15:40).
22. 지푸라기(욘41:27).
23. 전에 생각했던 대로(막16:13).
26. 구리에 슬픈 푸른 녹(마6:19).
28.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 제 집을 열고...(시84:3).
29. 법률상의 판결을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신21:5).

#### 십자말 정답

31x31 crossword puzzle grid with Korean characters.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Grid of church listings for the 'World-reaching Church' in the Northeast, including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 for various congregations like 뉴욕젯세마네교회, 뉴욕목양장교회, 리빙스톤교회, etc.

###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시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 12. 사모의 영성 가꾸기(4)

사모의 영성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삼순영성을 들 수 있습니다. 삼순영성이란 첫째, 순결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둘째, 순종을 위해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셋째, 순교를 위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기시려고 이미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 오라"고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 십자가 지고 시작된 사역자들의 사모들이 흘리는 눈물은 고귀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울고 남편을 위해 울고 그토록 죽지 않는 자신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 흘리는 눈물은 이제 거름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가신 신앙의 선조들의 많은 눈물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 초대교회 사모들의 눈물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교

곳마다 열약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결을 위해 십자가 밑에 엎드려 흘리는 눈물은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프로그램들이 사모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위로를 위한 온갖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진정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통회 자복하는 시간만큼은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모들의 영성은 행복합니다. 맑고 맑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의 생명이 날마다 마르지 않고 흘러내립니다. 이 생명이야말로 남편인 목사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고 자녀들에게도 생명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순종을 위해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 호소해오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순종에는 이해가 필요 없습니다. 순종하는 습관을 주시려고 때로는 권위적이고도 엄격하게 임하시킵니다. 그 학교의 커리큘럼 안에는 이해과목이 없고 대신 순종과목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순종하려는 인간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매개체를 주셔서 결국은 순종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훈련장으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순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배우자는 그 사랑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 삼순영성: 순결의 눈물, 순종의 땀, 순교의 피 흘려야 남편, 자녀 사랑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거짓

회의 부흥은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배고파서 울고 성도들의 시집살이가 고달파서 울고 역을 해서 울고 남편을 향한 실망감에서 울고 또 울던 사모들의 눈물은 오늘 한국교회의 부흥을 낳았습니다.

많은 울음의 종류 중에 가장 건강에 좋은 울음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웃음보다 몇배의 유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순결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사모들의 영성을 더욱 맑게 해줍니다. 남편 목사를 핏기라도 하면 무조건 사모는 엎드려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목회자 자녀가 왜 재래?"라는 소리라도 들리면 사모들은 죄책감을 갖고 회개부터 하곤 합니다. 혹여 성도의 자녀와 닮아도 하게 되면 무조건 목사 자녀가 핀잔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속이 뒤집어지는 것을 느껴도 누구에게 항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을 멈추기라도 하면 사모의 책임이라고 단정 지으며 모든 책임을 사모에게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회자까지도 사모의 심정을 알아주지 못한 채 조그마한 불평이라도 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다고 핀잔을 주며 기도할 것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사모의 업무가 너무 험거워 지쳐 몸살이라도 나서 남편에게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 때도 사모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간에 칼이 없듯이 목사님들은 사모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더 서러워집니다. 다른 평신도들을 위해서는 의례껏 심방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다가도 사모가 아파 누워 있으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오히려 핀잔을 줍니다. 어떤 사모는 심방 요청을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목사님 사택의 주소를 적어 올렸다고 합니다. "심방 요망"이라고 써서 제출을 할 정도였답니다.

사모들의 영성을 '자카 발전소'라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 다. 그래서 더 많이 울게 되고 더 많은 눈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목회자들의 경우 이제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 없다고 밖으로 뛰쳐나오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사모들의 세상을 찾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들은 사모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아직도 곳

잘나고 똑똑한 사모들이나 사역자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은 잘 하면서 남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는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 이유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면 분명 일이 틀어지고 실패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어 부모를 거역하기 시작하면 자존심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녀들 앞에 부모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그들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남편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알량한 자존심을 죽이기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부모의 권위 및 자존심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서는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지만 이런 자녀들 앞에서 나의 자존심을 죽이기란 너무 힘든 일입니다. 남편 앞에서 자존심을 죽이는 일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잘한다고 자처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의가 강해져서 남을 가르치려 하며 자신의 이론을 가장 옳다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남편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한다고 하는 사모일수록 성경도 영적 체험도 더 많이 하는 사역자일수록 배우자를 가르치려 들기 쉽고 더 자녀들 앞에 군림하기 일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하거라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내가 가장 하기 싫은 남편을 순종하기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남편에게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은 큰일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일에 자존심이 상하게라도 되면 그냥 지나갈 수 없어 큰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도 관용을 베풀기가 쉬운데 왜 유독 남편 앞에서는 속이 상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것일까? 남의 자녀가 실수하는 것에는 그렇게도 너그러워 오히려 그의 부모를 위로해줄 수 있는 여유조차 있어도 내 자식이 실수하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야단이 나는 것일까?

(16면으로 계속)

## 매일가정예배

허훈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 월 이 정조가 네게 임하거든!(삼상10:7-13)

사울에게 여호와와 신이 크게 임하고 또 임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의 무리들이 찬양하고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와 신이 크게 임하고 또 다시 한번 임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새사람을 만드시고 계속해서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새사람이 됐을 때 어떠

한 모습으로 변하는가? 먼저 항상 성령의 감동되는 대로 소신껏 일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항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 즉시 소신껏 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 화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철일을 기다리라!(삼상10:8-13)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나타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할 일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8절). 번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 원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하는 것, 성도의 교

제를 나누는 것, 전도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성경이 읽혀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철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 수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라!(삼상10:14-16)

성령의 사람은 항상 공과 사를 구별하는 신중함속에 일합니다. 사울의 숙부는 "과연 사무엘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암나귀를 찾았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하면서도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식구라고 할지라도 아무에게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 다. 모든 징조를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총만함을 받고 또 받았습니 다. 얼마나 기쁘고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은사를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절제합니다.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 신중함과 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 목 너희는 여호와와 택하신 자를 보느냐!(삼상10:17-24)

하나님나라의 일꾼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구체적으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기름부음을 받아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 다. 그리고 사울에게 구체적으로 나라의 지도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징조가 모두 다 임했습니다. 이제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분문을 보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마지막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임명을 받는 임직식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초대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은 제비뽑기를 했습니 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제비뽑기를 하여 뽑히면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결정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금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삼상10:22-24)

사울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백성들 앞에서 왕이 됨을 선포하게 됐습니 다. 드디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임명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쌓아놓은 물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 다. 도무지 자격이 없는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몰려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나라의 일꾼은 철저하게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내게 직분이 맡겨지면 무조건 순종하며 충성하면서도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시작이 아주 겸손했지만 나중에 겸손하지 못해 버림을 받았습니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줄 것입니다.

### 토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삼상10:25-27)

하나님나라의 일꾼은 항상 넓은 아량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분문에 어떤 사람들이 사울을 시기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하면서 멸시합니다. 여기에서 "비유"라는 뜻은 "소모시키다, 무익하다,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로 나라의 평화를 깨뜨리는 "Trouble makers"를 말합니다. 그런 일들이 늘 교회를 긴장시키고 화평을

떨 때 많습니 다. 이때 교회 지도자들은 넓은 아량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처리해야 합니다. 감정을 가지고 대하면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룰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히브리어를 보면 '귀먹은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생명을 다해 지키되 나에 대한 인신 공격은 그냥 귀먹은 사람처럼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b>강남중앙감리교회</b></p> <p>담임목사: 노재현</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p> <p>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호2동 1330-20</p>	<p><b>군포제일교회</b></p> <p>담임목사: 권태진</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저녁예배: 오후 7:30</p> <p>Tel. (82)-2643-8754-5 군포시 금광동 670-5</p>					
<p><b>금관교회</b></p> <p>담임목사: 김정민</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p> <p>www.kuman.org Tel. (82)-490-7000, Fax. (82)-436-5770 서울시 동양구 광우동 340-1(131-231)</p>	<p><b>든든한교회</b></p> <p>담임목사: 장향희</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오월야예배: 오후 9:00</p> <p>Tel. (031)977-3339-9, Fax. (031)977-8382 (우)110-8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0-1</p>	<p><b>로마한인교회</b></p> <p>담임목사: 한평우</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p> <p>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2-8676(교우회)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p><b>새에덴교회</b></p> <p>담임목사: 소강석</p> <p>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예배: 오후 5:00(매일)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p> <p>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b>성문교회</b></p> <p>담임목사: 황정식</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 오전 5:00 새벽예배: 오후 6:30</p> <p>Tel. (82)418-2648-3191-3, (82)-2646-3184 서울시 강동구 목동2동 520 (142-808)</p>	<p><b>성실교회</b></p> <p>담임목사: 김영복</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3:00</p> <p>www.seongsil.or.kr Tel. (8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p>	<p><b>성일교회</b></p> <p>담임목사: 김정곤</p> <p>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p> <p>Tel. (8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p>
<p><b>수정교회</b></p> <p>담임목사: 조일래</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p> <p>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p>	<p><b>승동교회</b></p> <p>담임목사: 박상훈</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p> <p>Tel. (02)732-2341-3, 사택(02)389-2235 서울시 용문구 용문동 137번지</p>	<p><b>시온소교회</b></p> <p>담임목사: 김성길</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매일-토)</p> <p>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왕동 419-2</p>	<p><b>신길교회</b></p> <p>담임목사: 이신용</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p> <p>Tel. (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3-3, (150-051)</p>	<p><b>신천교회</b></p> <p>담임목사: 송용결</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5:00/6:00</p> <p>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가락동 17길 29(신길동) www.shincheon.org</p>	<p><b>신촌교회</b></p> <p>담임목사: 이정익</p> <p>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새벽 5:30</p> <p>Tel. (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p>	<p><b>안암 제일교회</b></p> <p>담임목사: 조 윤</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8:30</p> <p>Tel. (011)82-2-927-5511 서울 용매동 제기동 146-7</p>
<p><b>양곡교회</b></p> <p>담임목사: 지용수</p> <p>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6:30/9:00</p> <p>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양곡구 양곡로 415 www.yangok.org</p>	<p><b>왕성교회</b></p> <p>담임목사: 김요나</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p><b>장위제일교회</b></p> <p>담임목사: 김기원</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p> <p>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p>	<p><b>주안교회</b></p> <p>담임목사: 주승중</p> <p>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p> <p>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403-838)</p>	<p><b>창대교회</b></p> <p>담임목사: 최용도</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p>	<p><b>청주주님의교회</b></p> <p>담임목사: 주서택</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p><b>충신교회</b></p> <p>담임목사: 이준호</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p> <p>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인/터/뷰

카페아메리카노 루크 정 대표

# 커피 한잔에 주님 마음을 담는다

언제부터인가 LA 한인 타운을 비롯 한 LA지역에는 다양한 커피전문점이 오픈돼 운영되고 있다. 특별히 스페셜티 커피전문점은 그곳에서 제공되는 독특한 커피 향을 즐기기를 위한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인 타운에서 서쪽으로 벗어난 멜로즈길에 자리잡은 카페아메리카노(5770 Melrose Ave #101) 역시 스페셜티 커피를 제공하는 곳으로 손님들의 발걸음이 심심치 않게 이어지고 있다. 카페아메리카노 대표이자 커피개발사인 루크정 씨는 커피가 주는 매력은 마음을 열게 해준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막역한 사이일지라도 커피



루크 정 대표

"커피는 2015년을 살아가는 현재의 중요한 문화코드라고 생각해요. 패션을 전공했지만, 음악을 공부했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커피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바인 베델교회에서 찬양사역을 했었고 현재 사람이빛교회에서 찬양사역자로 사역도 겸하고 있다는 정 대표는 하나님께서 문화선교사역의 마음을 주셨다며 카페아메리카노에서는 4년전 6차례 공연을 열었던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토요일 밤 뭘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 업체들이 퇴근한 후라 주차장이 텅 비게 돼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현재

## 커피 만드는 4분간 기도...음료 아닌 음식개념으로 접근 문화선교사역 펼치고파...교회순회 커피강좌 오픈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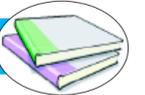
가 들어가면 막역함이 사라지는 듯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화의 꽃이 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정 대표는 커피한잔을 서비스하더라도 정성을 담은 커피를 마시는 분들은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크리스천들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그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 대표는 카페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커피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를 한다고 말했다. "손님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커피를 내려서 손님들 앞에 갈 때까지 4분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동안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오늘 하루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그리고 혹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덕분인지 그가 제공한 커피를 마신 고객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커피 맛이 매우 좋으며 다시오고 싶다는 것이다. 고객들 중에는 어떻게 커피

맛이 좋으냐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커피를 내린다고 대답을 해준다며, 간혹 직접 축복기도를 해줄 때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카페아메리카노에서 파는 텀블러의 로고를 어디선가 보고 찾아온 손님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러시아계 손님들이 찾아와서 커피 주문을 하셨는데 저희 카페로고가 있는 텀블러를 누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물어 물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예요. 러시아에서 커피전문점을 했던 분이었는데 이곳이 기도하면서 커피를 내려주는 곳이라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신기하기도 했지만, 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손님들을 보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지요." 카페아메리카노에서 제공되는 커피는 스페셜티 커피를 사용하고 있다. 스페셜티 커피는 커피 원두와 생두를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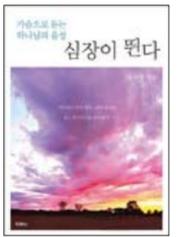
정했을 때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나온 것을 말한다. 인텔리전시아 커피, 블루바블 커피, 스타타운 커피 등이 스페셜티 커피에 해당되며 공통점은 커피 밭에서 직접 생두를 구입 후 북아에서 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하는 것으로 커피를 단순히 음료로 마시는 것이 아닌 하나의 음식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카페아메리카노에서 제공되는 커피는 고스트로스터스(Ghost Roasters)에서 볶아서 나온 원두를 사용한다. 고스트로스터스는 선교적 마인드로 운영되는 로스팅 업체라고 한다. 즉 고스트로스터스의 Ghost는 홀리고스트 '성령'을 의미한다. 패션디자이너를 전공했고 디자이너로도 일했던 정 대표는 카페아메리카노를 패션과 카페가 조화롭게 움직이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4년전 카페아메리카노를 오픈하면서 카페아메리카노는 단순히 영리목적의 아닌 선교적 마인드로 운영되는 카페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천그룹 월에이티의 리더인 박형준 씨와 함께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사정상 중단된 상태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주차장을 이용한 공연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화선교를 위해 패션디자이너로, 그리고 음악인으로서의 삶을 경험케 하셨다는 루크정 대표는 비즈니스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은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고 싶다고, 그는 비즈니스를 통해 문화선교사역을 펼쳐가고 싶다고 앞으로 교회를 순회하면서 커피강좌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그 커피강좌는 단순히 바리스타가 되기 위한 강좌가 아닌 실질적으로 커피비즈니스를 통해 복음전하는 데까지 연결시키는 강좌다. 카페아메리카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하며 주일은 쉰다. <박준호 기자>

새 책 소개



"심장이 뒹다"



저자 정수영 박사 (심장외과 전문의)

'인간재봉틀(Human Sewing Machine)'로 알려진 심장외과 전문의 정수영 박사가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솔한 고백을 담아 "심장이 뒹다"를 출간했다. 그의 저서를 통해 정수영 박사는 군을 제대하고 미국으로 유학, '5년 정도 수련과정을 마치고 모교로 가서 교수가 되리라'는 꿈을 안고 미국으로 오게 된 것과 의학 훈련생 정수영이 겪어야 했던 혹독한 고난의 현장들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한국어로 돌아가 교수가 되겠다는 꿈도 묘연해지고 미국에서의 삶도 힘들기만 했던 그 어느 날 정수영은 아내의 친구 집에서 건네받은 큐티 책으로 새 삶을 살게 되고 철저하게 말씀 속에 순종하며 사는 제 2의 인생을 시작한다. 매일 아침 말씀 앞에 앉을 때마다 그의 마음은 설레었고 성경자체는 활자요 종이에 불과하지만 성경님은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주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가슴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

본 서는 Part 1 하나님의 음성은 멈춘 심장도 뛰게 한다-가슴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 '또 다른 길', '구원의 음성', Part 2 마침내 멈추지 않는 심장을 달다-말씀을 먹다, '기도의 무릎을 꿇다', '얼굴이 빨개져도 계속되는 전도훈련', Part 3 심장이 뛰는 곳으로 달려가라-'의사로 부르신 복된 일터',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와 청년 멘토링', '가자, 선교지'로 구분돼 총 32개의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성경이 하고자 한 얘기가 내 삶을 통해 증거 된 것을 말하고 싶었다"며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이 태어날 때부터 훌륭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을지 모른다. 성경은 결점 투성이의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 기록이다. 나는 넘어지고 낙태하고 불성실하고 깊이를 모를 죄성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인내와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고 거듭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다. 정수영 박사는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메소디스트병원 일반외과 전문의 과정, 텍사스 심장연구소, 베일리대학교 메디컬센터, 아칸소대학교 메디컬센터에서 심혈관 외과전문의 과정을 마쳤다. 현재 플로리다 주에 있는 오칼라 심장센터의 시니어 심장외과의로 일하고 있다. 또한 세계누가선교회(Luke World Mission) 회장, 컴패션 얼라이언스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미주한인의료선교회(KAMHC) 회장, 자마와 코스타 강사로 섬기고 있다. ▲문의처: joykim61@yahoo.com <이성자 기자>

<5면에서 계속>  
그만큼 은행은 돈을 갚지 않았다고 월급을 차입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다. 대출고객은 담보로 내놓을 게 전혀 없어 기존 은행은 문턱에도 못 가본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대출 회수율이 놀라게도 99%에 도달해 선진 금융기관들의 연구대상이 되었던 곳입니다. 이것은 자활의지와 믿음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라민 은행의 소액무담보대출은 세계로 퍼져나가 현재 37개국에서 1억 가구 이상에게 대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그라민 은행의 성공사례는 복지 제도개혁을 놓고 연구 중인 나라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기보다는 스스로 일어나게 해야 하며,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그 돈을 대부해주는 것이 그 은행의 기본정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칼빈이 오래 전에 말했던 성경적인 이자에 대한 원리를 적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회가 고리대금사채 때문에 비참한 상황에 처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이자 대부를 소비성 차원과 생산성 차원에서 구분하면서 실천한다면 이자관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교회들이 연대하여 기독교회 은행을 만들거나 금융기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대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들의 기준을 정하고 대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행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이자 대부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메일: younsuklee@hotmail.com <15면에서 계속> 이것은 엄밀히 살펴보면 나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편도 나의 남편이기에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기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고 자식도 내 자식이

실수를 했기에 내 명예를 손상시켰기에 못 견디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의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 눈물은 진실 됩니다. 진정한 나의 자아가 죽는 소리입니다. 이 눈물이 거름되어 진정한 순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이 맘에는 들어있습니다. 배우자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www.rptse.com

# 동부개혁신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신장로교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5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5년 9월 4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5년 9월 5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 강 부흥회 : 2015년 9월 8일(화) - 10일(목)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 동부개혁신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